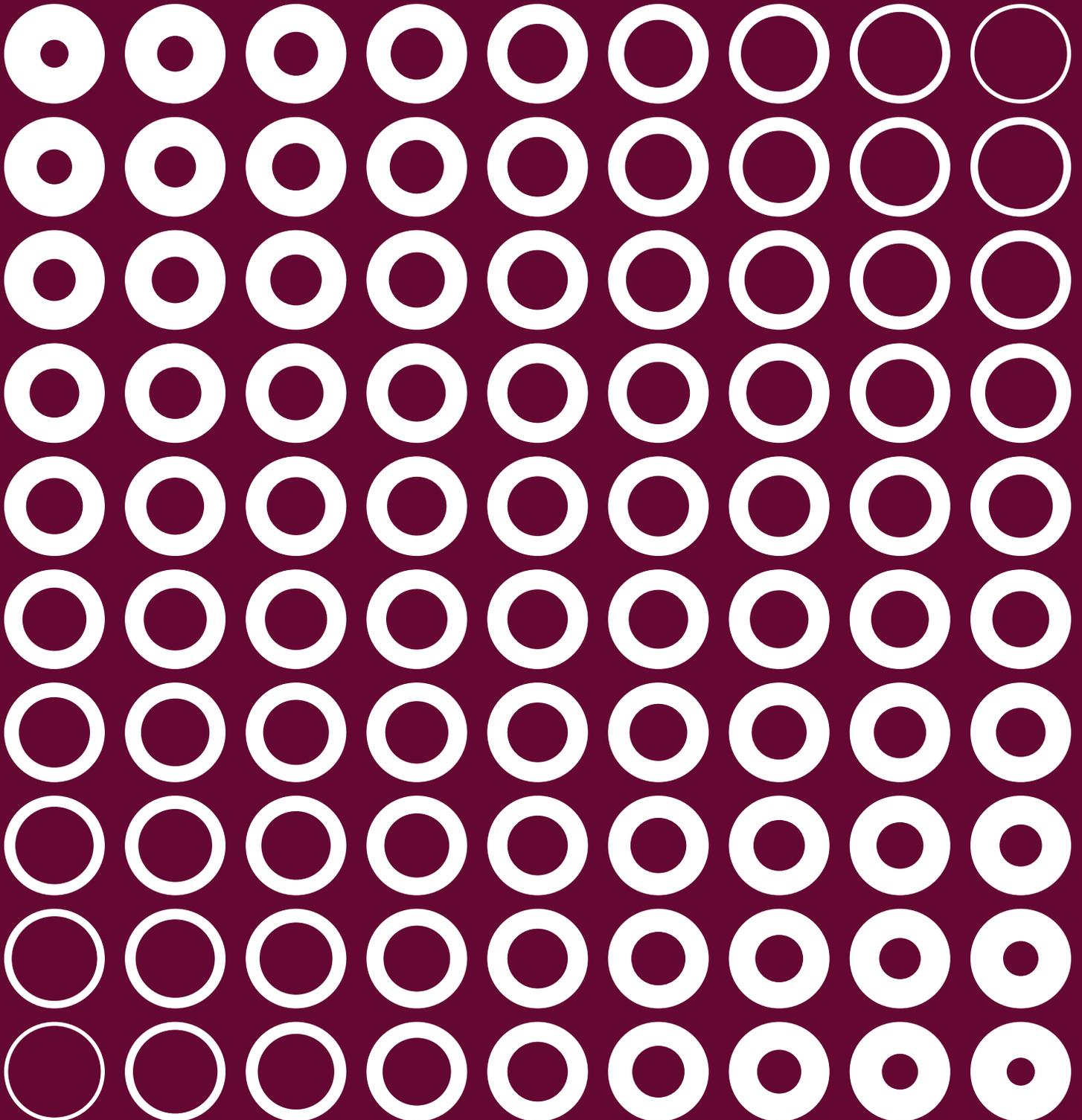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주한미군



한반도에서의 용어

얼라이언스/동맹: 한미동맹이라고도 불린다. 1953년 한국전쟁 종식 당시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맺어진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 동맹을 의미함.

CFC: 1978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설립된 한미연합사, 미군 4성 장군이 외국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유일한 사령부.

CMA: 남북한 포괄적 군사분야합의, 2018년 9월에 체결된 남한과 북한 양자 간의 협정으로 도로, 철도 및 회의를 통한 교류 촉진의 구조를 강화하며 육상, 해상 및 공중의 완충 지대를 확대하여 신뢰를 쌓고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체결되었다.

DMZ: 비무장지대, 남한과 북한을 나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으로 동서로 약 160마일, 남북으로는 약 2.5마일이다. 이곳은 1953년 한국전쟁의 적대행위를 중단시킨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됐다.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

G20: 유럽연합과 세계 주요 19개 국가 정부 정상 및 중앙은행 총재의 국제 모임. G20정상회담은 G20회원국 국가정상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이다.

INDOPACOM: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국방부의 지리적 전투부대 사령부 여섯 곳 중 하나. 이전에는 태평양사령부 (PACOM)으로 불렸으나 2018년부터 인도 아대륙과 인도양을 포함하여 새로이 명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남한과 북한의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지는 회담. 2000년도 첫 회담 이후 5번의 회담이 이뤄졌다.

JSA: 공동경비구역, 2018년 포괄적 군사분야합의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DMZ내의 유일한 구역. 이 장소는 DMZ와 같이 상징적인 곳으로 수십년간 남북한 사이의 회담, 교류 등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카투사: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으로 미군 및 군무원들과 함께 한국 전역의 기지, 캠프 등에서 근무한다.

MDL: 군사분계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남북을 분리하는 선. 양측의 군 사령관은 당시 마지막 적대 지점으로부터 각각 2km씩 철수하도록 명령 받았다. 그 결과로 북쪽 경계선과 남쪽 경계선은 각각 MDL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설정되었다. 이 완충지대가 DMZ이다. 이 분계선은 100-200m 간격으로 세워져, 해안의 양끝을 잇는 1292개의 노란색 및 검정색 표지판으로 이뤄져있다.

On Pen (온 펜/한반도에서): '한반도 지역에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미국 은어. 예: '온 펜'에 얼마나 있었어? / '온 펜'에 6개월 정도 있었어.

판문점 선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열린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끌어낸 공식 선언.

평양선언 (2018):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공식명칭을 지닌 이 선언문은 2018년 9월 19일 개최된 제4차 남북정상회담 후 작성되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서명하였다. 정상회담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평양: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양: 북한의 수도.

본국 송환: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이들의 유해를 포함하여 사람이거나 유해가 원래 출신지역 및 시민권을 지니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절차.

ROK: 대한민국. 한국/남한의 공식 명칭.

서울: 한국의 수도.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된 다국적군의 통합구조기구이다.

주한미군: 1957년 7월 1일 설립된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와 연합사령부를 지원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훈련과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연합군사령부의 합동 및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Resources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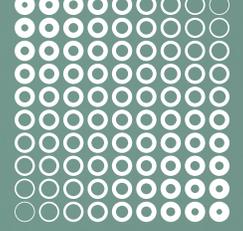
<https://www.facebook.com/myusfk>
<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Command>



<https://twitter.com/usforceskorea>
https://twitter.com/UN_Command



<http://www.usfk.mil>
<http://www.usfk.mil/About/United-Nations-Command>
<http://www.usfk.mil/About/Combined-Forces-Com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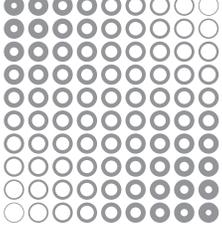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2018년은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사건이 빈번했던 한해였습니다. 이 출판물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미군과 동맹국이 한반도에서 만든 역사와 변화의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 전략커뮤니케이션처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으로서 사령부 산하 기관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며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각 출처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2
대사 서신

4
사령관 서신

섹션

6
세계가 바라본 한해

26
같이 갑시다

42
전략적 환경

52
하나의 군대:
세계의 사령부

[2018: 목차 한반도의 한해 주한미군]

주한미군

목차

2019 전략 다이제스트

6

세계가 바라본 한 해

8

2018년 주요 사건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2

판문점 선언

14

싱가포르 정상회담

16

사령부 이전

18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부임

20

잊지 않겠습니다

22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대장, 사령관 취임

24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28
한미동맹

32
문화를
통한 연대



34
한미 안보투자

38
용산기지 이전
& 연합토지관리계획

48
북한:
극명한 명암

54
유엔사령부
U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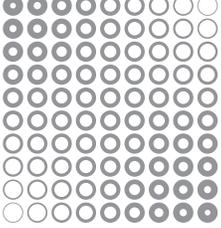
60
한국군
전사자
유해송환
단 한명의
병사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

62
한미연합군사령부
CFC

70
주한미군사령부
USFK

미8군...82
미7공군...88
주한미해병대...92
주한미해군...96
주한미특전사령부...100
미육군 극동지구공병단...104

108
색인:
약어
크레딧



[대 사 서 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지난해 주한미국대사로서 주한미군과 우리의 동맹 한국군과 함께 대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저는 한미가 동맹으로 누리는 이 특별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동맹으로서 60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해 왔으며,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통해 형성된 견고한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무역, 인권 및 법치를 강력히 수호하며, 우리는 위와 같은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려는 우리 두 나라의 헌신은 미래의 지역 안정과 안보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은 비록 군사적 뿌리에서 비롯되었지만,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활발한 무역 파트너십, 문화 교류, 광범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앞으로 양국의 경제와 국민 모두에 이익을 줄 무역 관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강화되면서 한반도는 지난 몇 달간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18개월 전, 북한은 심각한 도발을 반복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동맹군과 국제 사회의 확고한

지원을 바탕으로 유엔은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가의 강인한 연합군사력이 결부되어, 한반도 긴장을 크게 줄인 외교적 중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한 통찰력있는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한미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남북 군사 협의와 '포괄적 군사분야합의'를 구축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수반하기에 우리의 노력은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상황을 위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유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군사 파트너들의 철통같은 경계와 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한국군 옆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의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에, 저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연합사 그리고 주한미군의 노력으로 우리는 위협을 저지할 보루를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연대를 풍부하게 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봉사하고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군과 그 가족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들의 공로는 견고한 동맹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의 어떤 비상사태에도 준비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맹은 성공적인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빛나는 모범과 지역 안정의 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곳 서울 미국 대사관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이 훌륭한 동맹을 더욱 강화할 굳센 한 해를 향해 확고히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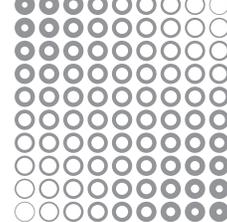
해리 B.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018년 11월 9일 한국의 전쟁기념관에 있는 한국전쟁 전사자 명비를 살피고 있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한미동맹 65주년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벤자민 파슨스 병장)



미 육군 대장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 이틀째인 2018년 11월 9일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한미동맹 65주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미 육군 벤자민 파슨스 병장)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사령관

한국의 방위와 지역의 영속적인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헌신과 사심없는 봉사를 하는 모든 미국, 한국, 유엔 전력제공국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반도 내 우리 미군은 지난 65년간 전략적 역지력을 제공한 가운데 정전협정을 유지해 왔으며, 어떤 도발이나 위기상황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대한민국과 지역내 동맹국들을 수호할 방호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로 점철된 시기를 지나 긴장완화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차례의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으며, 남북간 대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한반도내 군사긴장이 현격히 감소하고, 역사적인 변화를 현실로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속속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 헌신의 산실이자 정전협정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온 유엔군사령부는 바로 우리의 작전환경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기반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한 가운데 유엔사는 협정에 필요한 사안들을 기민하고 유연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바로, 위기 또는 유사시 국제사회와 연합사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유지하며, 동시에 평화의 촉매자 역할을 하는 유엔사 다국적 직원들의 전문성과 이들의 헌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군사령부는 항상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연합사는 65년 넘게 조직의 대명사가 된 그 힘과 결의에 걸맞게 현 긴장완화 국면을 마련하기까지의 험난한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위기속에서 태어나 호된 전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한미의 군사적 동반관계는 전 제대에 걸쳐 심화되고 확대되었으며, 명실공히 '철통같다'는 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향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의 산 증거입니다. 2018년 주한미군사는 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필수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이 세 사령부는 공히 침략에 대비한 방호벽이자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근간입니다.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야 말로 외교관들이 확고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저이며, 유사시 한미 지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무를 통해 미군 장병들은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서 근무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 방호에 헌신해 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여러분은 근거리에 위치한 매력적이고 이국적인 장소들을 어렵지 않게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어떤 위협에서도 방어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가히 모범이 되는 한국군들과 바로 옆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탁월한 사령부 장병들을 지휘하고 우리의 위대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대장

유엔군사령부/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세계가 바라본 한 해

2018년은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사건들이 빈번한 한해였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 도발로 얼룩진 2017년에서 벗어나 항구적 안정과 미래 평화를 위한 대화와 의지를 통해 긴장완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커다란 도전과 함께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의 지속적인 외교노력으로 북미는 근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긴장관계를 크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난제를 수반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교는 한반도가 도발국면에서 긴장완화 국면으로 변화한 지난 14개월 동안 목격된 변화를 지원하는 매커니즘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미군과 우리 동맹이 한반도에서 이뤄낸 주요 이정표와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한 해를 돌아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김동철씨가 2018년 5월 10일 북한에서 풀려난 뒤 미국에 도착하여 다른 두 명의 억류자와 함께 메릴랜드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환영을 받으며 두팔 들어 인사 하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 1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의의 표현으로 2년간 북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케니 홀스톤 병장)



2018년 주요 사건

한국은 수천년을 이어오는 독창적인 문화와 함께 풍부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 100년 간의 역사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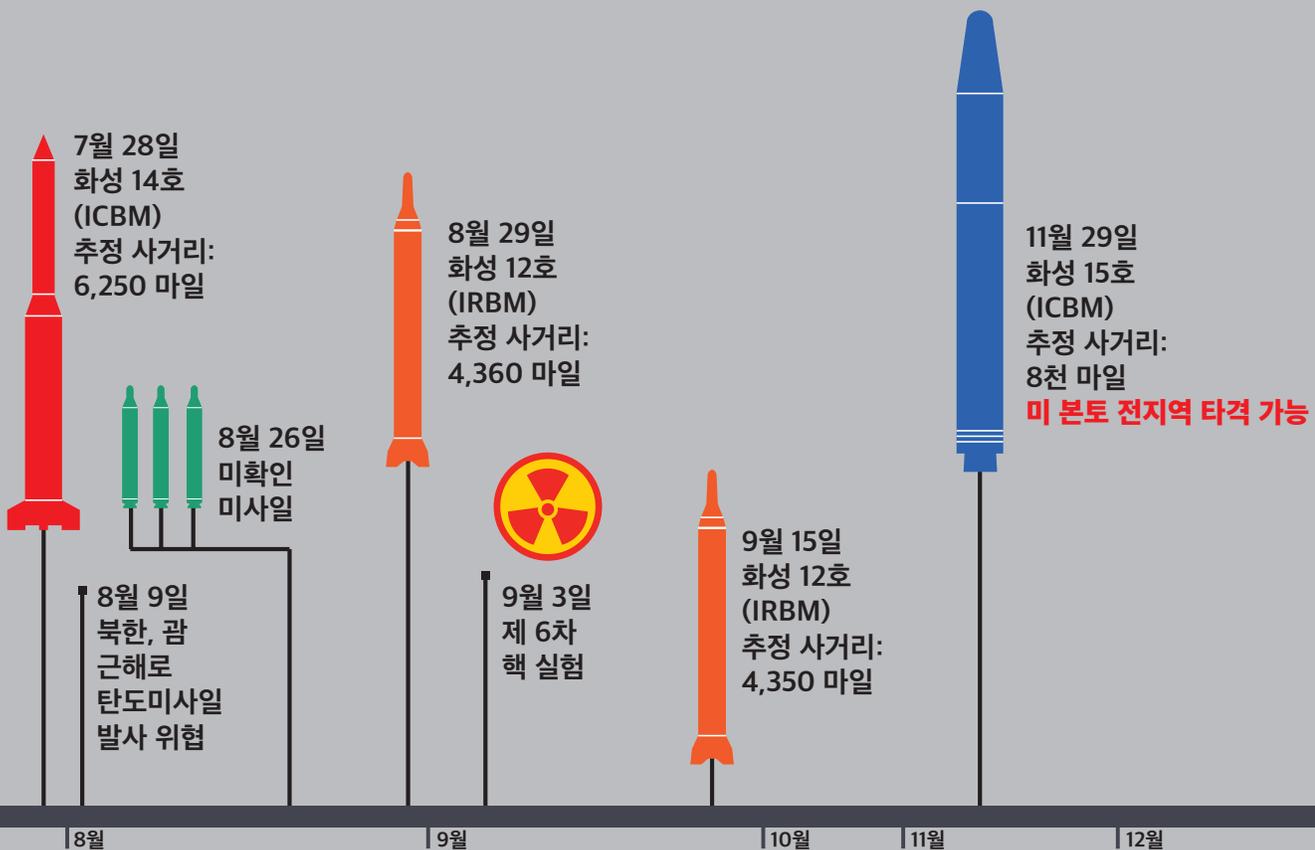
2018년에 있었던 모든 논의는 2017년도에 고조된 긴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7년 2월 12일, 북한은 2017년의 첫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그해에는 20번이 넘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빈센트 K.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과 렉스 킬러슨 전 미 국무부 장관이 2017년 3월 17일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남북군사분계선에서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전 K. 하프 중사)

2017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7년을 지나—290 일 동안 20번의 미사일 발사—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은 외교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분계선 지역인 판문점에서의 회의를 통해 남북한은 올림픽 최초로 남북의 선수들이 단일팀이 되어 한반도기를 걸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빈센트 K. 브룩스 유엔군사령부,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미국 대표단에 합류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개막식 참석은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방호 결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을 개막식에 파견했습니다. 약 70년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후 최초로 김일성 일가 친족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9일
2년여만에 첫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1월 16일
한국전쟁 참전국 포함 한반도 관련 20개 동맹국 외교장관,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회의 개최

2월 9일
남북한 단일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2월 25일
북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 표명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대화 제안 수락



3월 26-27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회담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기가 게양되고 있다. (사진제공: 피터 네펠 / DPA
 / 알라미 실시간 뉴스)



4월 20일
 남북한 정상
 핫라인 개통



4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4월 20일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과 과거
 6차례의 핵실험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



4월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임명



4월 27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한
 첫번째 북한 지도자가 됨.
 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5월 7-8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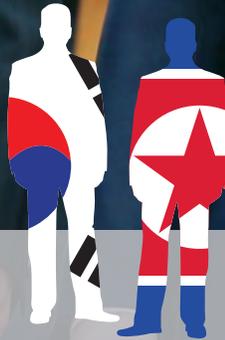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담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2차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제공: 남북정상회담 기자단/풀/AFLO/알라미 실시간 뉴스)



4월 20일
남북한 정상
하라인 개통

4월 27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
김정은 위원장, 남한을
방문한 첫번째 북한
지도자가 됨. 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남북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담



4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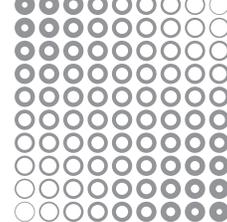
4월 20일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과
이전에 6차례의
핵실험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



4월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임명

5월 7-8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2차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서 열린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남한과 북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했습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한다.
-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위해 노력한다.
- 단계적 군축을 통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비무장 지대의 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간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히 확대하고 남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바로 그 다음해에 비무장지대의 분계선 지역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행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중의 하나인 이곳 판문점에 또 하나 역사의 페이지를 더했습니다.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3명 환영

5월 16일
북한,
싱가포르
회담 재고
경고



5월 16일
북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최근 (북한의)
담화문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 때문에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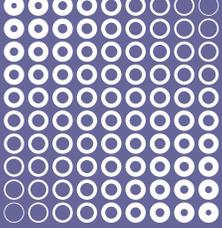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전격
남북 정상회담



5월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재확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인 2018년 6월 12일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국가정상간의 한번의 회담만으로 수십년의 불신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 논쟁적이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세계와의 교역과 교류를 수용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결과는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4월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가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 작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남은 2018년 동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북한,
싱가포르
회담 재고
경고

5월 16일
북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최근 (북한의)
담화문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 때문에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전격
남북 정상회담



5월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재확인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서 개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단독 양자회담에 앞서 첫 만남을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백악관 공식 사진, 세일러 크랙헤드)

6월 14일
북한 관영
매체(조선중앙TV),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장편다큐멘터리에서
북한의 국제적
인정 칭송



6월 19-20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6월 29일
존 W. 베시 주니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본부, 험프리스기지에서 개소식

7월 3-5일
전문가들,
북한 내
반미선전의
눈에 띄는
감소에 주목



7월 6일
김정은 위원장,
친서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





6월 29일
존 W. 베시 주니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본부,
 험프리스기지에서 개소식
 본 개소식은 2003년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
 본부 이전 과정에서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7월 3-5일
전문가들,
 북한 내
 반미선전의
 눈에 띄는
 감소에 주목

7월 6일
김정은 위원장,
 친서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

7월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4개월 만에
 3차 평양행

7월 8일
 북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실로 유감”
 이라 표명하며
 미국의 노력을
 “날강도같은
 (비핵화 요구)”
 라 명명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Staff in 1959. He retired f

사령부 이전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6월 29일 한국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존 W. 베시 주니어 빌딩의 개막과 서울에서 험프리스 기지로의 이전은 한국전쟁 당시의 적대 행위가 끝난 이래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수행했던 두 사령부의 역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 사령부 신청사 개소식은 용산기지에서 험프리스기지로, 107억 달러가 투입된 공식적인 이전 사업의 주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빈센트 K. 브룩스 유엔군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이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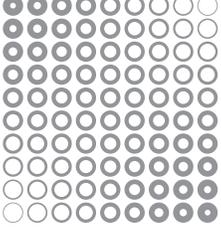
행사를 주최했으며, 사령부건물은 초대 연합사령관인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전 합참의장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시 사령관의 아들 데이비드 베시는 개소식에 참석하여 아버지에게 수여된 영예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6월 29일은 베시 장군의 9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유엔사 17개 전력 제공국의 귀빈들과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 이어, 사령부는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이름을 딴 강당 헌정식을 하였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김병주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빈센트 K. 브룩스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이 2018년 6월 29일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장군 본부건물 사령부 강당 개관식에서 기념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이 강당은 한국군 첫 4성 장군 백선엽 예비역대장 (뒤의 사진 속 인물) 에 헌정되었다. (사진제공: 주한미군 데이비드 챔맨 하사)



7월 1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한국 외교부에
신임장 제출



해리 B.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부임

해리 B.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018년 7월 7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해리스 대사는, “동북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해리스 대사는 공식적으로 신임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제정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 자리는 전임 마크 리퍼트 대사의 임기가 2017년 1월 종료된 이후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기까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역 미 해군 제독인 해리스 대사는 가장 최근까지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한국
외교부에 신임장
제출

트럼프 대통령 5월 23
일 해리스 대사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 6월
28일 미 상원의원
인준



7월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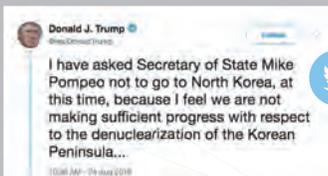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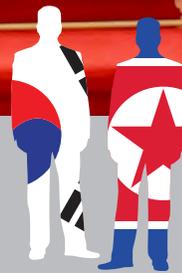
8월 1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돌려받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상자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송환식



8월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로, 남측
상봉단이 일시적으로
북측에 건너가 가족들과
재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앞열 우)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앞열 좌)이 서울에서 2018년 10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열 중앙)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없음)을 예방했다. (사진제공: 미 국무부)



8월 23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스티븐 E.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8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수일내로
평양 방문할 것이라
발표—5개월 만의 4차
방북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 취소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11년만에 처음 이뤄진
남한 지도자의 북한 수도
평양 방문으로, 올해 두
정상 간에 이뤄진 3번 째
정상회담



9월 18일-10월 5일
제 73차 유엔총회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



유엔사령부의장대 대원이 2018년 8월 1일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본국송환식 도중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로 유해 운송 케이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 제공: 데이비드 챔맨 하사)



8월 1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돌려받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상자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송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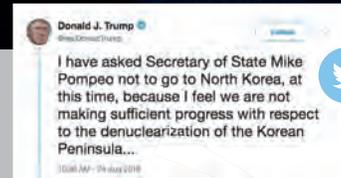


8월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로, 남측 상봉단이 일시적으로 북측에 건너가 가족들과 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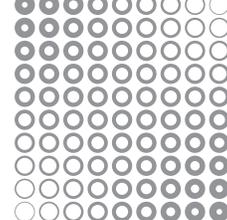
8월 23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스티븐 E.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8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수일내로 평양 방문할 것이라 발표—5개월 만의 4차 방북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 취소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 도중 실종되거나 전사한 장병을 모두 찾아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유엔군사령부의 중대한 임무입니다. 전장에서 전사, 실종된 분들의 성공적인 유해 송환은 평화로 나아가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2018년 7월 27일,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공동성명서에서 합의한 유해 송환 약속에 따라 유엔 관계자에게 55상자의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역사적인 유해송환은 2018년 7월과 8월 중 3일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명의 병사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지키며, 존엄을 갖추어 유해를 대하고,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를 영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7천7백명 이상의 미군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약 5천3백명의 미군 유해가 북한 지역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만든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은 전장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해를 인계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약 4,219구의 유해를 인계 받았으며, 그 중 2,944명이 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11년만에 처음 이뤄진 한국 지도자의 평양 방문으로, 2018년 두 정상 간 3번 째 정상회담



9월 18일-10월 5일 제 73차 유엔총회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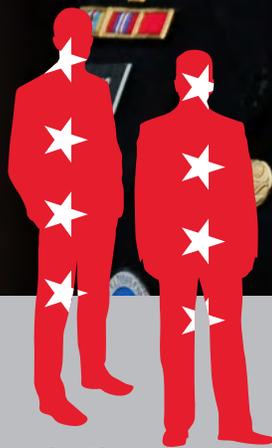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서명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화적 화합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시민을 상대로 연설한 첫 한국 지도자





이임하는 빈센트 K. 브룩스 (왼쪽)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과 새로 부임하는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오른쪽) 사령관이 2018년 11월 8일 한국의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이취임 행사에서 바커필드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제공: 미 육군 벤자민 파슨스 병장)



10월 29일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확인:
병력 감축—남북
각각 35명 경비
근무, 지뢰제거
검증, 경비 초소
2곳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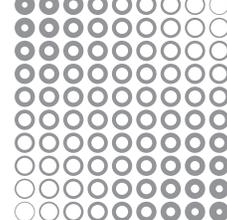
10월 31일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 미
워싱턴 DC
에서 개최

11월 1일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엄격하게 요새화된
남북 분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금지 실시

11월 8일
빈센트 K. 브룩스 대장,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대장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
사령관 이취임식



11월 12일
CSIS 연구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20여곳의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공개 첩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



[2018: 한반도의 한해]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대장, 사령관으로 한국에 부임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11월 8일 이취임식을 통해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신임 사령관을 환영하고 빈센트 K. 브룩스 장군을 환송했습니다.

이취임식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폴 J. 셀바 미 합참차장, 필 데이비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데이비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브룩스 장군은 한국전쟁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논란이 거듭되던 시기에 사령부를 이끌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은 1982년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에이브럼스대장은 중대부터 사단까지 모든 제대의 지휘관을 역임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투작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한국 부임전까지 미 육군 내 최대 규모 사령부인 미 육군전력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월터 A. 타갈리쿠드 주임원사는 브룩스 장군의 한국 임기동안 함께 했던 스티븐 L. 페이튼 주임원사로부터 주임원사 직책을 인계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유엔, 유엔 전력 제공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동임무를 함께 수행하며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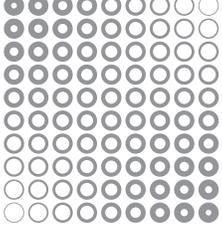
-2018년 11월 8일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

11월 15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싱가포르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연례 G20 정상회담 일환으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비핵화가 경제 번영과 영구적인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각각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8년 11월 30일에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18년 하반기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5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싱가포르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

1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나누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출범



11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인정

1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서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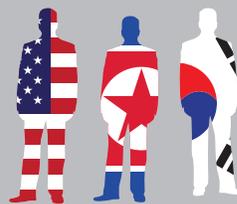
도널드 J.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트로 코스타
 살게로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약식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백악관 공식 사진, 세일라
 크렉헤드)



12월 12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 및
 비무장화 최종 검증

12월 20일
 한미 워킹그룹,
 서울에서 첫 회의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북측
 판문역에서 개최



1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 전달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
 친서 전달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목표로 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2019년에
 "자주" 만나자는 뜻
 밝혀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한국 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모토는 한미동맹이 68여년 전의 혹독한 전장에서 다져졌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단순히 과거에 생겨난 힘의 원천이 아니라, 동시에 한미 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닦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및 외교계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 (linchpi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자, 지역 경제 강국, 세계 무역의 중심지, 기술 혁신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수십 년간의 협력과 가치 공유를 통해 국제 개발, 과학 기술, 경제 및 무역, 그리고 광범위한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아래에서 한국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에서 3세대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 덕분에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한 강력한 군대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국내총생산 (GDP)의 2.7%를 방위비로 지출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장병이 3월 15
일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칼빈슨호가 한국 함대 본부에
입항하자 환영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칼 빈슨 항공모함강습단은
미국 제 3함대의 지휘권을
확장하려는 미 태평양 함대
노력의 일환으로 서 태평양에
정기 배치되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채드 M.
버틀러 하사)

[WE GO TOGETHER]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공동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형성되어 68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십년간의 공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미동맹은 양국의 공통된 가치와 이념으로 강화되었고, 공동방위를 천명하며, 분쟁이 없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억제는 정치적 결의와 확고한 군사 준비태세, 그리고 필요시 축적된 군사역량의 현시를 통해 구현됩니다.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억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이는 한국이

번영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2017년의 어려운 시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일련의 통합적이고, 절제된 전방위적 군사 행동으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며, 연속적인 도발에 대처했습니다.

침략에 대항해 굳건히 버티고 단결된 모습을 견지한 끝에 무력의 과시가 행해지던 곳에 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양국 외교관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공동의 조치를 협상할 때,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군 자산의 개발과 배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미 해군, 공군 그리고 육군 무기 체계 등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연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확실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1 쪽에 이어서 계속



1. 2018년 6월 21일 열린 합동 여성 리더십 심포지엄에서 미 해군 병사들과 한국측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국방 홍보원 해병대 브라이스 호지스 상병)



2.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1월 16일 싱가포르 2018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양측 지도자들은 양국 공동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 논의했다. (사진제공: 백악관 공식사진, D. 마일스 콜렌)



견고한 동맹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마이클 E. 보일 주한 미 해군 사령관, 필립 G. 소여 제 7함대 사령관 해군준장, 정진섭 한국 해군참모차장이 소여 사령관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한미합동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소여 사령관의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다차원적인 한미 해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미 해군 채드 M. 버틀러 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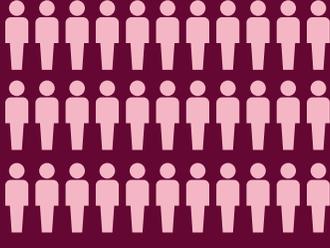
경제협력

국내 총 생산(GDP)
1조5천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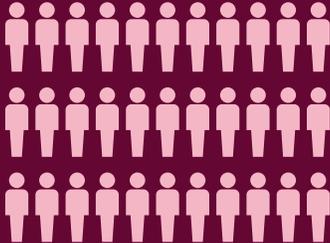
세계 12위 경제 대국 인구수 5천1백만명

410억
달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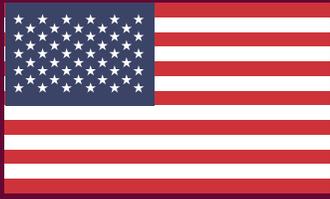
미국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한국 일자리
12만개
이상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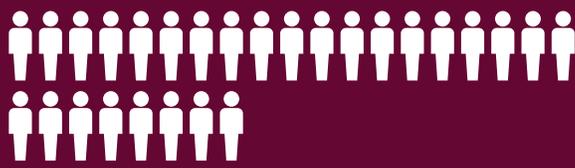


520억
달러
근접하며

한국의 미국에
해외직접투자



미국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



♣ = 2000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방위하며 체결된
한미동맹은 군사적 기원을
넘어 양국간의 유대를
심화시키고 강화하는 중요
경제, 문화적 관계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왼쪽: 캘리포니아 출신의 재미교포 1세대인 미국 스노우보드 선수 클로이 김이 2월 1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뒤 기뻐하고 있다. 클로이 김은, “한국 분들이 스노우보드에서 응원할 선수가 없다면 저를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과 미국 모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마이클 캐플러 / DPA / 알라미 실시간 뉴스)

28 쪽에 이어서

군사

6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은 한반도에서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수십년의 합동훈련, 작전수행 경험 그리고 공동의 희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간주되는 역량있고 준비된 군사력이 창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모든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이 유지되고 서로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 구비를 위해 훈련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한민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은 한국에 해외 직접 투자로 41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18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소재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5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소재의 기업은 한국에서 1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9월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의 경제통합을 증진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9년 이래 미국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의 자동차, 의약품 수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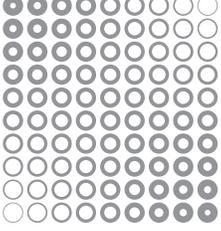
변함없는 파트너로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한 강력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8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한국에는 약 15만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이러한 이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이며 유기적인 문화교류는 음악을 비롯해 음식, 스포츠,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7퍼센트를
국방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이다

위: 오산공군기지 제36전투비행대대 소속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콘이 한국에서 비행훈련을 하는 동안 공중 급유를 받을 위치를 잡고 있다. 캘리포니아 트라비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6공중재급유비행대 소속 KC-10 익스텐더는 F-16 파이팅 팰콘 및 A-10 썬더볼트 II와의 야간 공중재급유 훈련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한편, 한국의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소속 인원도 미 공군과 함께 공중 재급유 훈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켈시 터커 상병)

30쪽: 의정부시립무용단이 2018년 10월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미2사단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의정부시 환송음악회에서 한국의 전통 무용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한미 연합사단 제2보병사단 라켈 빌라로나 병장)



[WE GO TOGETHER]

문화를 통한 연대

전 분야에서 맺어지는 한미의 특별한 관계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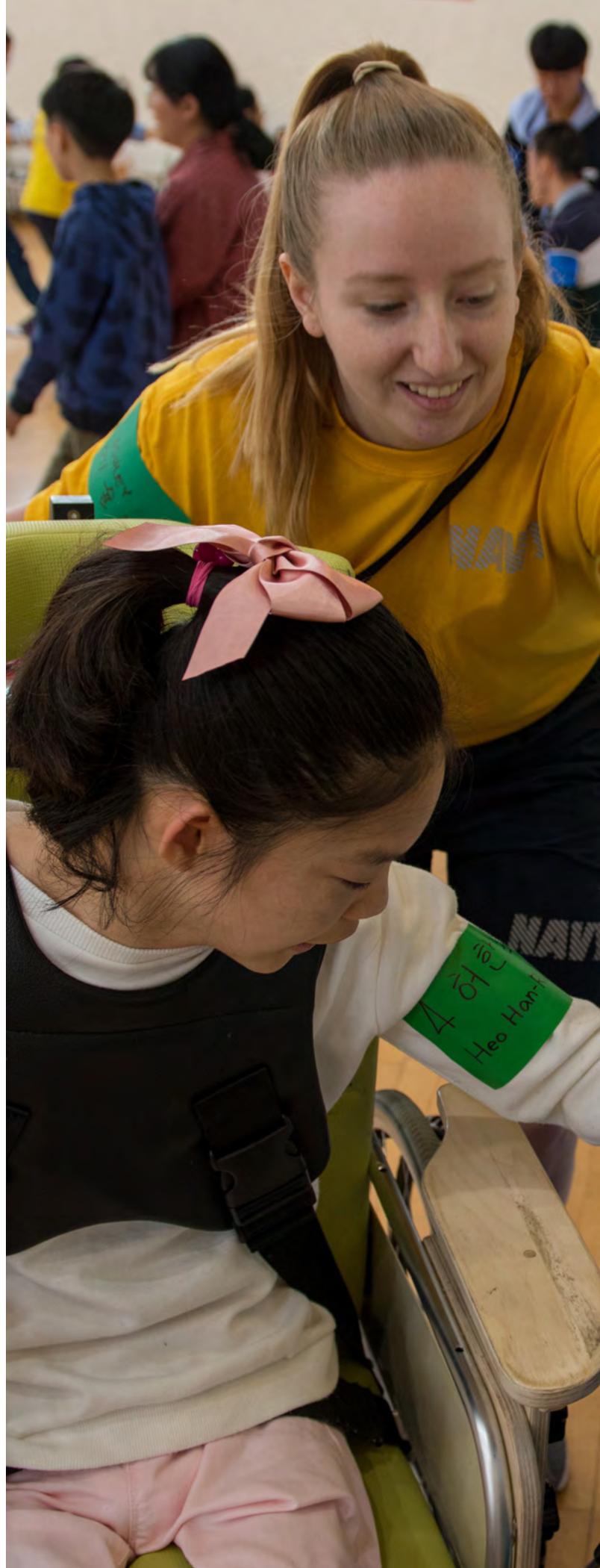
1950년 이래 다국적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해 온 이래로 한국과 미국, 16개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관계자들의 일상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파견되는 한국군들과 미군 가족들을 화합하게 하는 연례 행사 ‘카투사 프렌드십 워크’ 같은 단합대회는 줄다리기 등의 친선경기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음악 콘서트나 요리교실 같은 문화교류 또한 군 장병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공동체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었던 영내 미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행사는 세계의 사령부에 소속되어 한국 전역에서 생활, 근무하고 있는 5만 5천명의 국제 직원들에게 ‘한반도 생활’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한국 주둔미국 사령부 방문객과 신임 관계자들은 종종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한미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친밀함과 공적 관계에서 확장된 사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령부의 주안점인 일치단결의 노력에 의해 구축됩니다. 모든 제대의 주한미군 공동체는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군사 시설 내외 어디에서든 한국 사회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활동에는 스포츠 행사, 언어 학습, 학술 교류, 인턴십 및 지역 사회 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목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미 시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켜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 미 해군 대원이 2018년 4월 28일 장애인 보호시설인 거제도 애광원의 원생과 함께 지역 친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미 해군과 애광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파트너십은 진해 미 해군에 배치된 미 해군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이 과거 한국전쟁 기간중 봉사를 시작한 이래 6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시맨 윌리엄 칼라일 상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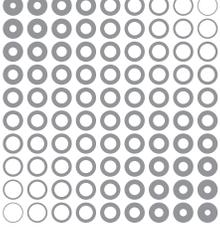


주한미군의 지역 친화 프로그램은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령부는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에게 한국의 관습, 역사 및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한국 시민에 주한미군을 소개하며 이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알리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은 문화 이해, 군사협력, 지역 사회 참여 등을 통해 한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총체적 접근 방식입니다.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미국 문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1. 한국 시민이 2018년 9월 16일 한국의 오천 포은문화축제에서 금의환향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분장을 준비하는 해병대 시설관리국 캠프 무적 소속 미 해병대원을 도와주고 있다. 미 해병대원들은 한국의 전통 유교 선비의 의상을 입고 14세기 중반 유명 유학자인 포은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 이같은 지역 친화 프로그램은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브랜코 빌리시치 중사)

2. 430여명의 미군병사, 미 국방부 민간 관계자 및 가족, 그리고 한국측 관계자들이 2018년 9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5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 10킬로와 5킬로, 편런에 출전해 함께 달렸다. (사진제공: 미 육군 마크 A. 카우프만 하사와 이유철 상병)



[WE GO TOGETHER]

한미 안보 투자

동맹의 다양한 주요 군사 역량을 지원하면서, 미국은 현재 가치 290억 달러 (한화 32조원) 이상의 대한 대외군사판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승인으로 미 방산업계가 대외군사 판매를 통해 한국에 28억 달러 (3조 2천억원)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은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130억 달러 (14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장비 획득은 정보감시정찰, 탄도 미사일 방어, 제공권 장악, 해상 보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인항공기, 개량형 패트리엇, 해군 함선 및 군통합전투기 (Joint Strike Fighter)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량과 투자는 한미동맹의 전투 준비태세를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이 국방 현대화 요건에 부합하고자 꾸준히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내 기존의 비대칭적 위협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가장 민첩하고 치명적이며

효과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격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정부와 군, 산업계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합동군사지원단 (JUSMAG-K)를 통해 위협에 한 발 앞서고, 도발을 억제하는 역량을 함께 개발 및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보 지원 프로그램의 관리와 함께 JUSMAG-K는 다양한 장소와 회의를 통해 양국의 연대를 완성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미흡 분야가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단일화된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JUSMAG-K는 한미동맹이 첨단 혁신과 미래 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미간 50여개의 공동 개발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첨단 프로젝트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 GPS 대전파방해 역량, 차세대 적외선 감지, 자율상황인지 시스템, 항공 표적 위협의 탐지, 추적, 요격 능력 강화, 지하시설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지상 레이저 통신 등이 있습니다. ▶

37 쪽에 이어서 계속



F-35A 스텔스기 (사진속 기체와 유사) 는 올해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5세대 전투기이다. 제 58전투비행대대 소속 F-35A 파일럿 브래들리 짐머맨 미 공군 소령과 정비소대 선임승무원 사바다 펄 상병, 제33항공정비대대가 2016년 10월 텍사스 포트워스 얼라이언스 공장에서 비행 전 점검을 완료했다. (사진 제공: 미국 공군 피터 톰슨 병장)

한국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대외군사판매 통해

1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장비 구매

28억달러

규모의 미 산업계 직접상용판매
방위물자 및 서비스 승인



안보협력

JUSMAG-K

한국과 290억 달러

이상의 대외군사판매 관리



왼쪽: 스탠더드 함대공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해군에 해상 화력의 핵심이다. 2018년 10월 26일 스탠더드 미사일-45 비행 훈련 중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태평양 미사일 시험장에서 목표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 : 마시일방어국 마크 라이트)

34 쪽에 이어서

한미 안보 협력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전략적 방위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여, 한반도의 위협을 저지하고 지역과 세계적으로 협력하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의 안보 환경이 나날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JUSMAG-K 는 전략적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의 방위에 필요한 전투요건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민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입니다. JUSMAG-K 는 한국과 함께 지역 및 세계 안보 협력과 지원을 조정하고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



주한 미 합동 군사지원단 (JUSMAG-K)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안보협력 조직인 JUSMAG-K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정부의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USMAG-K 는 주한미국대사 직접통제하 업무를 수행하는 주한 미대사관 컨트리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감독아래에 있습니다. JUSMAG-K 는 대사의 권한 하에 있으며 보다 폭넓은 국방관련 커뮤니티와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합니다.

36쪽: 함께 항해하는 한미 해군의 함정이 양국 해군 간의 시설-서비스 상호운용성을 보여준다. 한국 해군은 3대의 이지스 전투함을 추가로 구입하여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했다. (아래서부터) 한국의 서해 류성룡함 (DDG-993),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스푸루언스 (DDG-111), 울곡 이이함 (DDG-992), 강감찬함 (DDH 979). 스푸루언스함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및 미국과 한국해군의 P-3 순찰항공기와 함께 지상, 지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지역 방위를 위해 통합해군역량을 강조하는 작전에 참가하였다. (사진 제공, 미 해군 윌리엄 개스킬 병장)

[WE GO TOGETHER]

희생과 우정의 여정

용산기지 이전 & 연합토지관리계획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래 한국과 미국은 그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50만명이 넘는 미 군인들이 한국에 왔으며, 그중 많은 인원들이 가족을 동반했습니다. 용산기지를 통해 한국에 부임한 이들은 한미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미 육군 극동지구공병단은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의 변혁, 부대 이전,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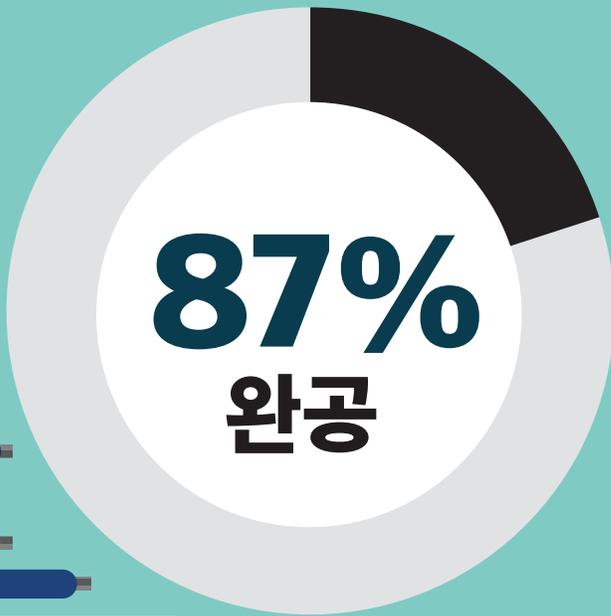
이 계획에 따른 시설 건설 및 공사 그리고 미군의 이전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529개의 시설이 완공, 프로젝트의 87%가 완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는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미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포함한 주요 사령부가 험프리스 기지의 새 시설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1950년에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와 1957년에 세워진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 기지에 65년 이상 주둔했습니다.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장군을 기념해 명명한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사령부 신축건물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군의 헌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40 쪽에 이어서 계속

왼쪽: 한 아버지와 아들이 2018년 8월 27일 험프리스 센트럴 초등학교의 개학일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험프리스 기지 내의 학교는 8월 27일 신입생과 재학생, 교사진, 동반가족들을 환영하며 2018-2019학년 학업일정을 시작했다. 용산 미군기지 내 서울 아메리칸 초중고등학교는 개교 60년 이후 2018-2019학년을 끝으로 폐교된다. (사진제공: 제20공보파견대 메리엄 트리스 병장)

숫자로 보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10년간 건설에
107억달러 소요
한국 정부, 전체 비용의
90% 이상 부담

40마일의 수도 배관

A network of blue pipes with a valve, representing the water supply infrastructure.

988
마일의 케이블

A network of blue and green cables, representing the fiber optic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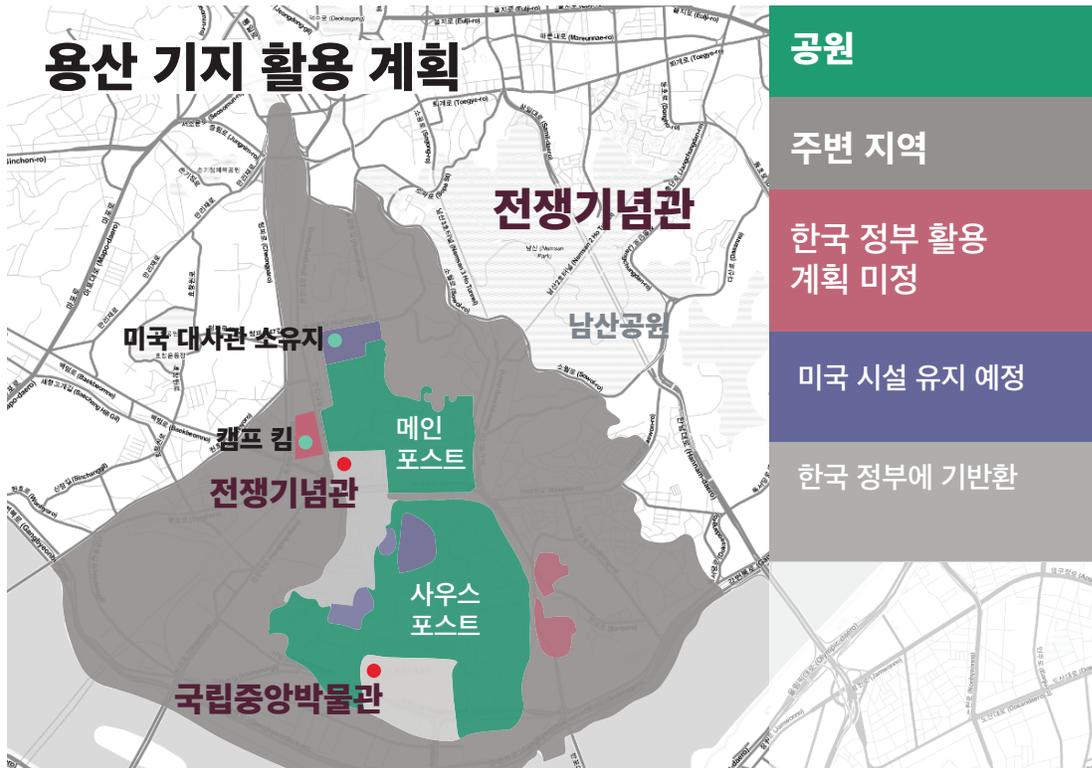
1,760만
입방미터 성토

A silhouette of a bulldozer, representing the earthmoving work.

8.5피트
백년 빈도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높이

An upward-pointing arrow, representing the required flood resistance height.

용산 기지 활용 계획



38 쪽에 이어서

전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장군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이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동맹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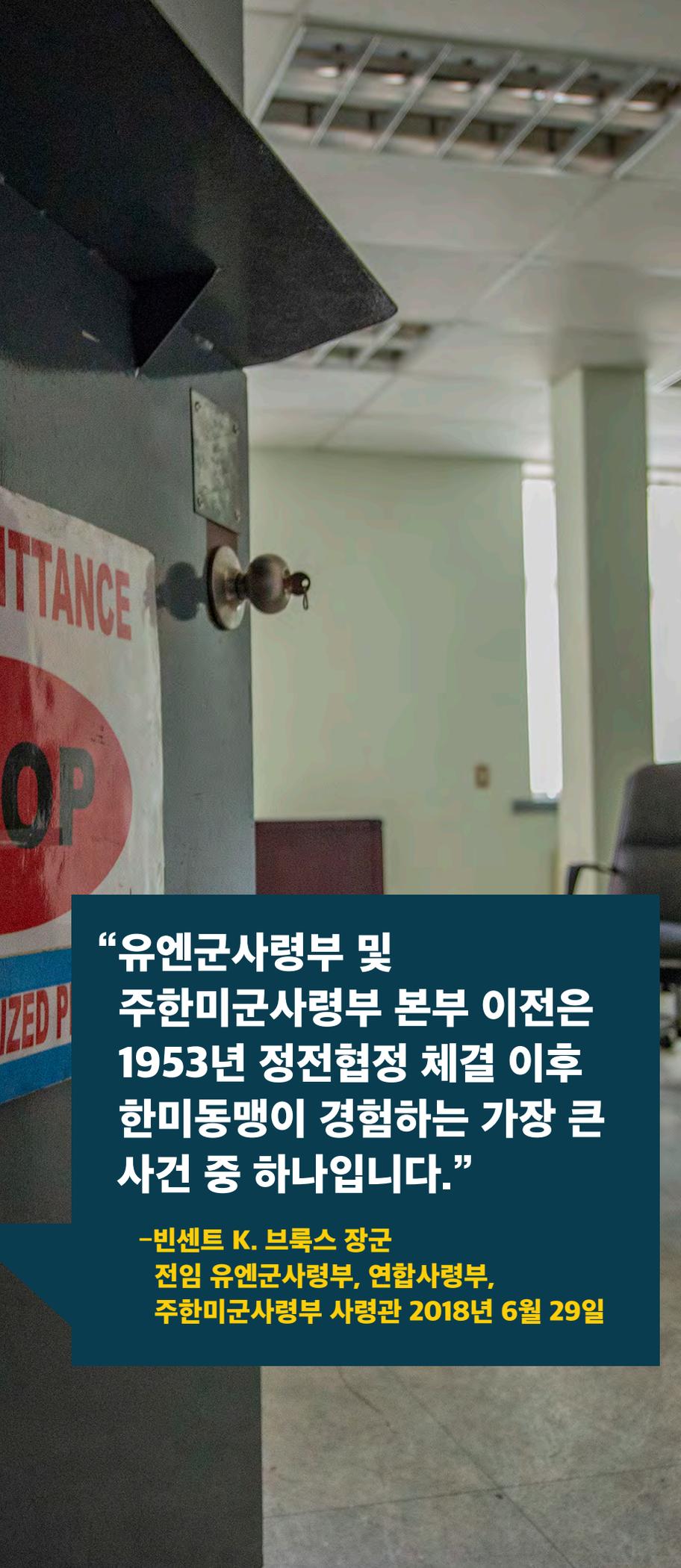
제2보병사단 또한 2018년 10월,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Warrior Division”의 본부 이전은 1965년 제2보병사단이 한국에 다시 돌아온 후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용산 미군기지의 한국 반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 역사적인 토지를 한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용산기지에서도 한반도 평화 및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공동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시행 이후 전 용산기지 부지 사용 계획: 주황색 부분은 미국 시설로 남을 예정이며, 밝은 회색 부분은 앞서 한국 정부에 반환된 부지이다. 초록색 영역은 도심공원으로 사용될 계획이고 분홍색은 아직 한국 정부가 활용 계획을 지정하지 않은 구역을 나타낸다.

아래: 이 한반도 지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오산 공군기지와 험프리스 기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했다. 두 본부는 모두 서울의 미 용산기지에 65년 이상 위치했었다.





미 육군 용산기지

용산기지는 한미가 공유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건물은 'T'와 'S' 뒤에 숫자가 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T'는 일시적인 (temporary) 를, 'S'는 반영구적인 (semi-permanent) 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항상 이 땅을 한국 시민들에 돌려줄 계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는 '영구적인' 시설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나타난 임무 및 목표의 일시적 혹은 반영구적인 변화는 오랜시간 이같은 구조를 만든 다양한 표시와 변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은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 해방, 공존, 파트너십, 우정이 모두 이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

위: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건물은 'T'와 'S' 뒤에 숫자가 붙은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서 'T'는 일시적인 (temporary) 를, 'S'는 '반영구적인 (semi-permanent) 를 의미한다. (사진제공: 미 육군 켄트 헬만 소령)

왼쪽: 한때 미8군 본부와 본부대대를 수용했던 이 오래된 건물은 2018년 5월 28일, 몇 개의 의자와 책상을 제외하고는 빈 공간이 되었다. 많은 기관이 미군 통합을 위해 107억 달러와 15년의 노력을 투자한 남쪽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션 키몬스)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본부 이전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동맹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빈센트 K. 브룩스 장군
전임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2018년 6월 29일



【전략적 환경】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주요한 힘을 지닌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국가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며 역사적 갈등, 연계 관계, 역동적 경제 및 강력한 군대 등의 복잡한 정세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정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를 뒤엎을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신뢰할만한 세력으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병사가 2018년 6월 19일 남북의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해 온 판문점 비무장지대의 상징적인 공동경비구역에 결연히 서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리처드 콜레타 하사)



[전략적 환경]

복잡한 역학관계

한국은 국방 및 외교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성과 번영을 지키는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중요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인구
2천5백만명

북한

2017년까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담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습니다.

국방비 지출
39억달러

베이징 ★



인구
14억명

중국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유엔 제재를 지원하며 2018년도 수출입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편,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국방비 지출
2,280억달러

평양 ★

서울 ★



인구
5천백만명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 연대 정상화를 모색하면서 북한과의 신속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긴장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국방비 지출
390억달러

모스크바 ★
서쪽으로 4000 마일



인구
1억4천4백만명

러시아

러시아는 2018년 현재 동북아 지역 전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때문에 양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660억달러

도쿄 ★



인구
1억2천6백만명

일본

일본은 북한에 대한 미 국무부의 최대 압박 조치의 적극적인 지지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대북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만약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추진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국방비 지출

450억달러

“한국민들이 한반도에서 성취한 것은 그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믿는 모든 나라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북한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신이 의도하신 대로 삶을 충실히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17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우호 여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한국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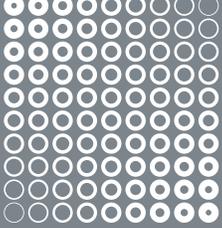
80퍼센트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람들은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역할을 우선시한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없다면 여론의

81퍼센트는 주한미군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으며;

만약 종전이 서명된다면 이 수치는 62 퍼센트로 내려간다.



[전략적 환경]

현역 군인
150만명

예비역 및 준군사력
750만명



북한 군사력

작년 한해 동안 2016년과 2017년에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한국

평양

판문점

서울



2017년 미 국방정보국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백만여명의 병력을 포함,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천5백만 북한 인구의 6%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5~30%는 예비 또는 준군사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상군의 약 70%와 공군과 해군의 50%가 비무장지대 약 60마일 이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보병
- 기계화 보병
- 기갑
- 포병
- 전투기 기지
- 운송 기지
- 헬기 기지
- 기타 군용비행장
- 항공본부
- 주요 해군기지
- 함대 본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B/C/ER (SRBM) 추정사거리: 최대 435마일		
M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호 (MRBM) 추정사거리: 620마일 이상	노동 (MRBM) 추정사거리: 800마일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호 (IRBM) 추정사거리: 2천마일 이상	화성12호 (IRBM) 추정사거리: 천8백마일 이상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3호 (ICBM) 추정사거리: 3,418마일 이상	화성14호 (ICBM) 추정사거리: 6,250마일	화성15호 (ICBM) 추정사거리: 8사천마일

병력

병력	950,000	북한군 병사 백만 명 세계 4 위 수준의 군사력
탱크	4,200	
장갑차	2,200	
야전포병	8,600	
다련장로켓	5,500	

공군

병력	111,000
전투용 항공기	800 대 이상
헬기	300
수송기	300 대 이상

해군

병력	60,000
잠수함	70
경비함	430
수륙양용 상륙정	260
기뢰전함	20
보조함정	40

북한: 극명한 명암

2018년 한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을 개발하고 과시하던 기존의 도발적 행동에서 외교, 관여, 억제 정책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2018년 초,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긍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공식적 의사를 개선하며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양자 외교

김정은 위원장은 다자간 협상은 지양하며, 다음과 같은 활발한 양자 외교 일정에 연이어 착수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회담,
- 시진핑 중국 수석과 3차례 회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비핵화 라는 목표를 향한 틀을 제공하는 두개의 역사적 선언이 이뤄졌습니다.

북미간에 이뤄진 별도의 싱가포르 북미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동 회담은 2019년 4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사됨), 일본과의 회담 역시 머지 않은 시기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관

그러나 수년간 이뤄진 북한의 도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영구적 평화체계를 수립하고 축적된 불신 해소에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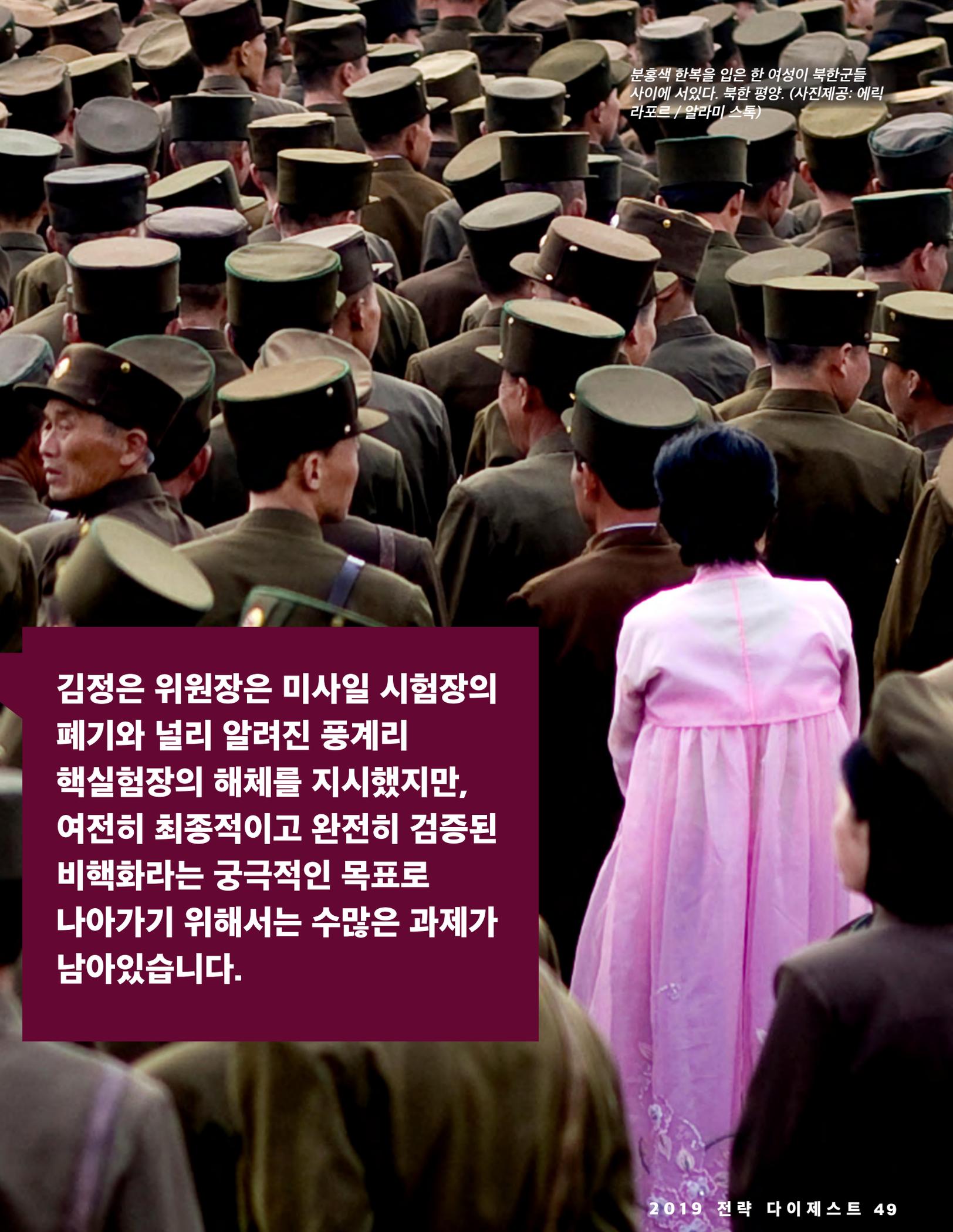
9월 평양선언으로 포괄적군사협정에 따른 상호신뢰구축 조치가 취해졌지만, 긴장 완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시간이 입증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외교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미연합 훈련도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50 쪽에 이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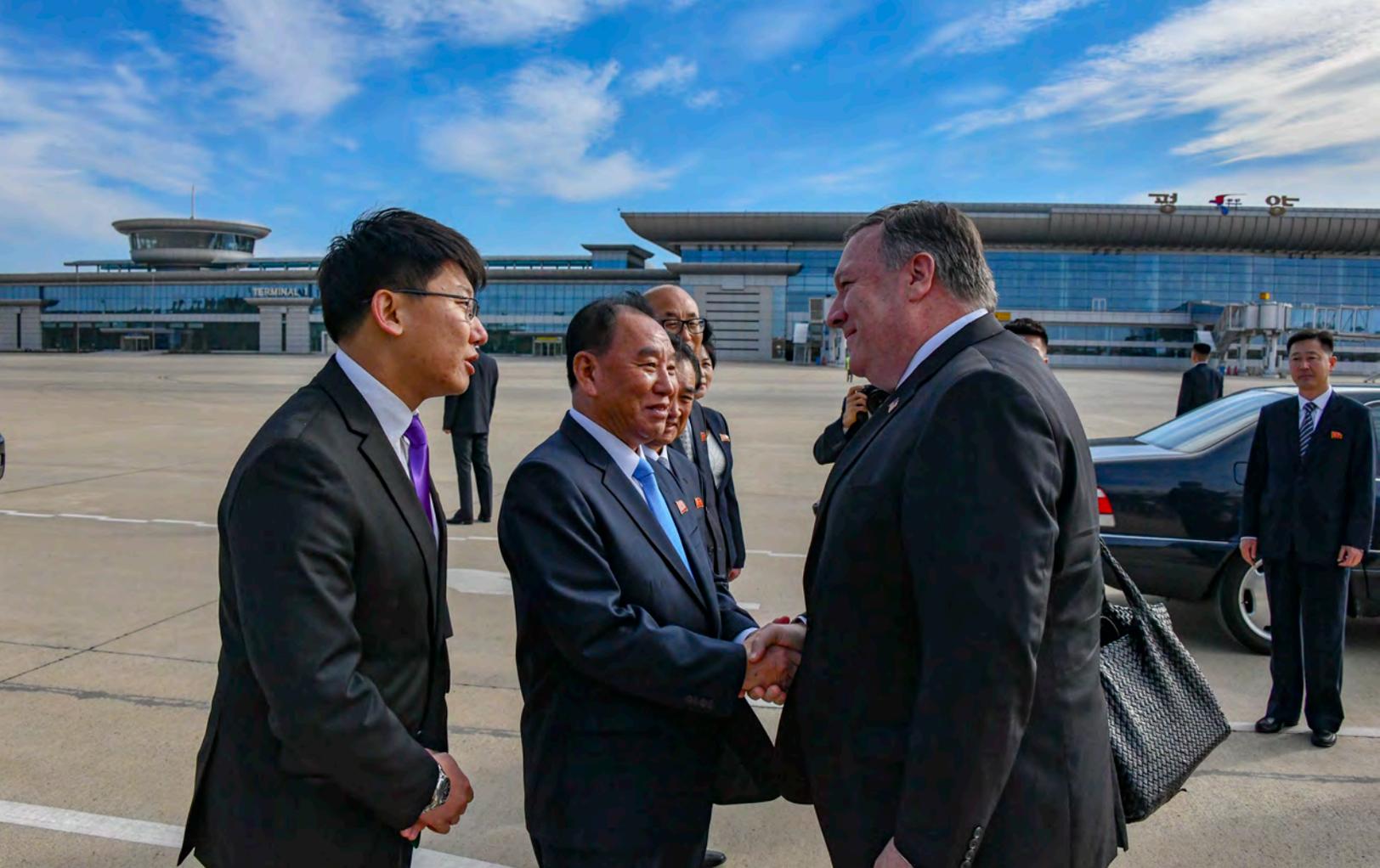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인 김영철 부위원장 (왼쪽) 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가운데) 부부장이 2018년 2월 10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공식 사진)

2. 북한의 특수부대 번개부대가 2017년 4월 17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 북한 로동신문)



분홍색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 북한군들 사이에 서있다. 북한 평양. (사진제공: 에릭 라포르 / 알라미 스톡)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48 쪽에 이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분야에서도 유사한 자제심을 발휘하고 외교적 절차에 성실하게 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사안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북한은 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에만 초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생산성 증가, 첨단 과학 기술의 보급 확대, 그리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일반적 적용을 촉구하는 꾸준한 선전이 수반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개혁과 개방은 피하고 투자, 원조, 지원이 필요없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발을 모색하는 전통적 방식에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를 피하고 외화 확보가 가능한 관광 및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북한과 이런 형태의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가들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의 원조와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제재 완화 조치와 투자할만한 안정적 국가라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이끌어 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없다면 북한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따라 미미하고도 상징적인 업적

외에 그 어떤 주요한 경제 발전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8년은 모두가 환영한 긴장완화 및 외교와 협상으로 복귀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던 기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북한은 결국 도발과 강압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김위원장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외교적 협력 확대를 지속한다면, 이것은 북한이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을 취하며 도발적인 북한으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한다해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언제나 억지력과 한국의 방위를 보장하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50쪽: 마이클 R.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 7일 북한의 평양에 도착하여 김영철 부위원장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미 국무부)

오른쪽: 북한 평양의 수예 연구소와 류경호텔 (2017년 5월 2일) 현대적인 외양을 자랑하는 류경호텔은 수년간 내부 공사가 미완인 상태로 남아있다. (사진제공: 93088251 © 아블라켓 |Dreamstime.com)

【전략적 환경】
북한: 극명한 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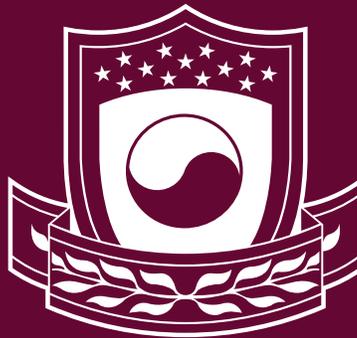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된 다국적 군의 통합지휘조직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미국과 한국의 확고한 동맹과 헌신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영속적인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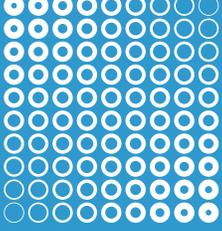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연합훈련과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군 지원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109A6 팔라딘이 12월 5일 캠프 호비 세인트 바바라 훈련장에서 제1기갑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제1 야전포병연대 4대대의 테이블 6 포격훈련 도중 155mm의 비활성 훈련 포를 발사하고 있다. 테이블 6 포격훈련은 개별 유탄포 대원과 화력지휘소 소대를 대상으로 하는 야전포병부대의 연례 필수훈련이다. 이 훈련은 전반적인 준비태세와 소대 단위에서의 야전포병 핵심 운용능력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진제공: 미군 선 M. 킬리 소위)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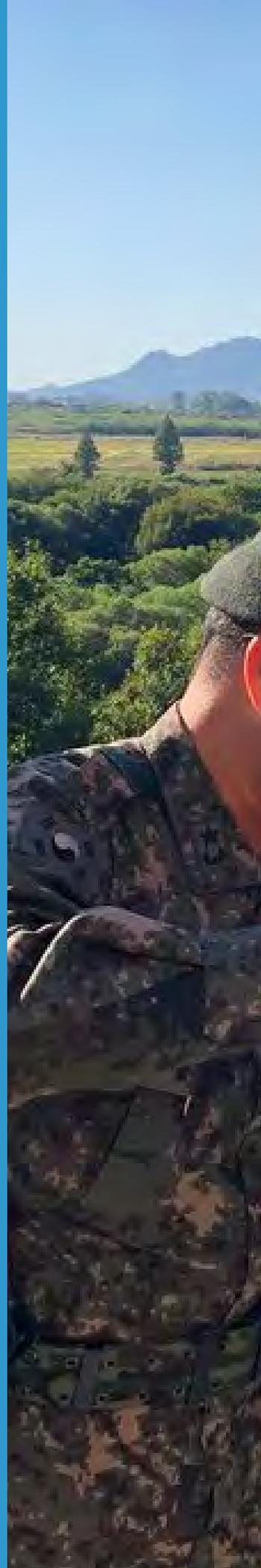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된 다국적 군의 통합지휘조직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효하며 최종적인 평화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이 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 (MAC)이 설치되었습니다. 비록 1994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에서 철수했지만, 군정위 유엔군사령부 직원들은 정전협정 시행이라는 위원회의 중대한 임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사령부는 다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 한반도에 대한 국제의무의 지속적인 중심으로 존재
-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의 촉진
- 한국의 방위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조정 및 모든 관련국의 연대 규칙 시행
- 한반도 외부의 모든 기술적, 전문적 군사자원 제공
- 위기 또는 유사시 국제의무 지원 및 수용
- 1953년의 적대행위를 종식시킨 정전협정의 시행





왼쪽부터, 한국의 제1공병여단장 임태규 육군준장, 육군제1군단장 안병호 육군중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캐나다 중장 웨인 D.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2018년 9월 25일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에서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뒷 배경으로 북한이 선명히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R.T.D. 스피러 대위)

유엔사 경비부대 소속 한미병사들이 필립 S. 데이비스 대장이 공동경비구역을 출발하기 위해 탑승한 항공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데이비스 대장은 새로이 명명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임후 첫 한국 방문을 마쳤다. (사진제공: 한국-미디어 센터 니콜라스 브라운-벨 병장)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 (UNC) 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과 함께 국제적 정당성과 집단적 결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다국적군입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및 미국 등 18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

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18년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지 6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 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력 제공국으로 구성된 2018년 1월 16일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부터 JSA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정전회의



유엔사후방기지



중립국감독위원회

유엔군사령부 지도부

협상,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본국송환 및 각종 정상회담 촉진을 위한 작업 등,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회복을 추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다국적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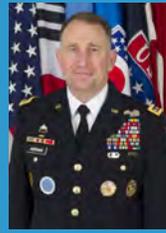
지난해 유엔군사령부는 조직의 역할에 충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최초로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 출신의 중장이 유엔사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중장의 부사령관 부임은 시기상으로 역사적인 포괄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간 합의가 도출된 중요한 때에 이루어 졌습니다.

포괄적 군사분야합의 이행

남북간 포괄적 군사분야합의는 도로, 철도 및 회의를 통한 남북 교류를 촉진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육상, 해상 및 공중의 완충 지대 규모를 확대하여 신뢰를 쌓고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고유 권한을 부여 받으며 유엔군사령부는 포괄적 군사합의 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군사합의 이행 첫 90일동안 긴장 완화 노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동 지뢰제거, GP철수, 공동 유해발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유엔군사령부는 감시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 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과거 유엔사 및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원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기대할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지만, 68년 전 유엔 안보리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유엔사는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며 평화를 보전해 나갈 것입니다. □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장군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은 부임전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블랙에 위치한 미 전력사령부의 22대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웨인 D. 에어 중장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은 키프로스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유엔군,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 (2번) 에서의 나토군을 포함하여 소총소대 및 사단을 지휘했다. 에어 중장은 가장 최근 나토군 훈련임무-아프가니스탄 사령관직을 수행했다.



마크 W. 질레트 소장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이에 앞서 하와이 캠프 H.M.스미스 전략기획 및 정책부국장으로 근무했다.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68년 전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유엔결의안을 통해 창설된 다국적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그들의 군대를 통합된 사령부 하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유엔군사령부 활동을 보충하는 것은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소규모로 존재하는 유엔사후방기지입니다. 호주 대령이 이끄는 유엔사후방기지의 국제 장교단은 일본에 전략적으로 지정된 7개의 유엔군 기지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캐나다 군인들이 '턴 투워드 부산' 추모식을 위해 한국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엔 전력 제공국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에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이다. (사진 제공: 미 해군, 윌리엄 칼라일 상병)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  호주
-  벨기에
-  캐나다
-  콜롬비아
-  덴마크*
-  프랑스
-  그리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필리핀
-  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  태국
-  터키
-  영국
-  미국

-  중립국 감독위원회
-  폴란드
-  스위스
-  스웨덴*

* 의료지원 제공 국가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다국적 노력을 조율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 군 통합을 위한 다국적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전 전사자 유해송환

유엔군사령부는 전사자와 전쟁 실종자 및 포로를 되찾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지난 29년 동안 629구의 유해가 본국송환 되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모든 유해의 정확한 신원확인 과 명예로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해는 전문 역사가, 법의학자, 군인, 정부 관계자들이 최대한 주의하고 존중하며 수습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7천6백명 이상의 미군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며, 약 5천 3백명의 미군 유해가 북한 지역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만든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은 전사자와 전쟁 실종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약 4,219구의 유해를 인계 받았으며 그 중 2,944명이 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유엔군사령부는 2018년 7월 27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55상자를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

오른쪽 그림은 유해 인계부터 일람, 검사, 신원확인, 고국에서의 장례식까지 본국송환 과정을 보여준다. (사진제공: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9,000명

이상의 행방불명

유엔군 중

영국인 1,100명

필리핀인 50명 · 캐나다인 30명

네덜란드인 3명 · 뉴질랜드인 1명

콜롬비아인 30명

터키인 400명

호주인 30인 · 벨기에인 5명

그리스인 3명 · 프랑스인 20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인 9명 · 태국인 5명

7,600명

이상의

미군

행방불명

5,300명의

행방불명 미군 유해가

북한

에 있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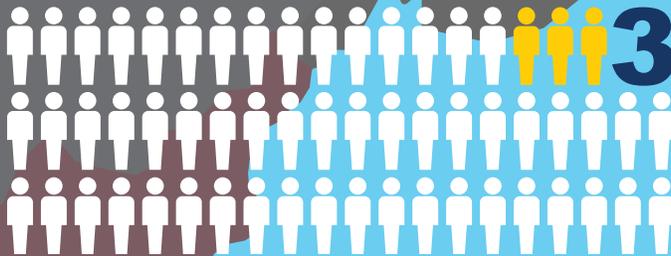
1. 유엔군사령부, 미 국무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들이 2018년 7월 27일 북한 원산에서 송환된 한국전에서 실종된 군인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담은 상자에 유엔기를 올리고 있다. 아직 사망자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송 상자를 감싸기 위해 유엔기가 사용되었다.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송상자는 각 전사자의 조국 국기로 감싸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미 육군, 데이비드 J. 마샬 중사)

2. 유엔군사령부가 2018년 10월 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뉴질랜드 해군 및 병사들을 송환했다. '테 아우라키'라 불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군은 1955년 1월 이후 해외에 묻힌 병사나 그의 가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마오리족의 기도로 시작된 추도식을 통해 뉴질랜드 전통 노래와 춤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선보였다. (사진제공: 한국 미디어 센터 벤자민 파슨스 병장)

3. 오산 공군기지 관계자들이 2018년 7월 27일 도착한 유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애설리 타일러 하사)

4.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018년 8월 1일 하와이 진주만 허큘 함동기지에서 전사자를 추모하는 추도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에이프릴 할 상병)

미군 전사자 유해
55 상자
2018년 8월 1일에
본국으로 송환



신원확인된 3명의 장병들은
**찰스 H.
맥다니엘 상사
윌리엄 H.
존스 상병
프랭크 J.
설리만 병장**



6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감식소, 유해 신원확인 작업

- 2018년 9월 12일 찰스 H. 맥다니엘 상사 신원확인
- 2018년 9월 13일 윌리엄 H. 존스 상병 신원확인
- 2019년 1월 15일 프랭크 J. 설리만 병장 신원확인

7 신원확인된 전사자의 유해, 유족의 품으로

10월 27일 찰스 H. 맥다니엘 상사,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린우드에 안장



진주만 허큘 함동기지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부입니다.

연합사는 미국과 한국의 확고한 동맹과 헌신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영속적인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준비 태세와 역량을 보유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사령부 삼자 구조의 핵심이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미 양국의 결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미국의 여타 동맹과는 다른 독특한 군 사령부로서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령부는 복잡하고도 효과적인 군사 구조를 형성하여 한반도를 방위하는 방대한 역량을 제공하고 외교, 정보, 경제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의무대가 대량 사상자 후송훈련에서 한국군 헬기를 이용, 미 부상병을 한국군 상륙함으로 후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사라 윌리엄스 상병)

오른쪽 :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장 D. 스콧 맥킨 소장이 2018년 6월 15일 험프리스 기지의 미 2사단 연병장에서 신임 한국 부사단장 김용철 준장에게 연합사단 패치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박진유 2사단/한미연합사단 공보)

아래 : 한국의 의료인력이 2018년 2월 15일 미 해군 의료 인력과 함께 한국군 천자봉함 (LST687)에 승선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 미 해군과 함께 태국에서 실시된 연례훈련 코브라 골드에 참가했다.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총 7개국이 참가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조슈아 핑크니 상병)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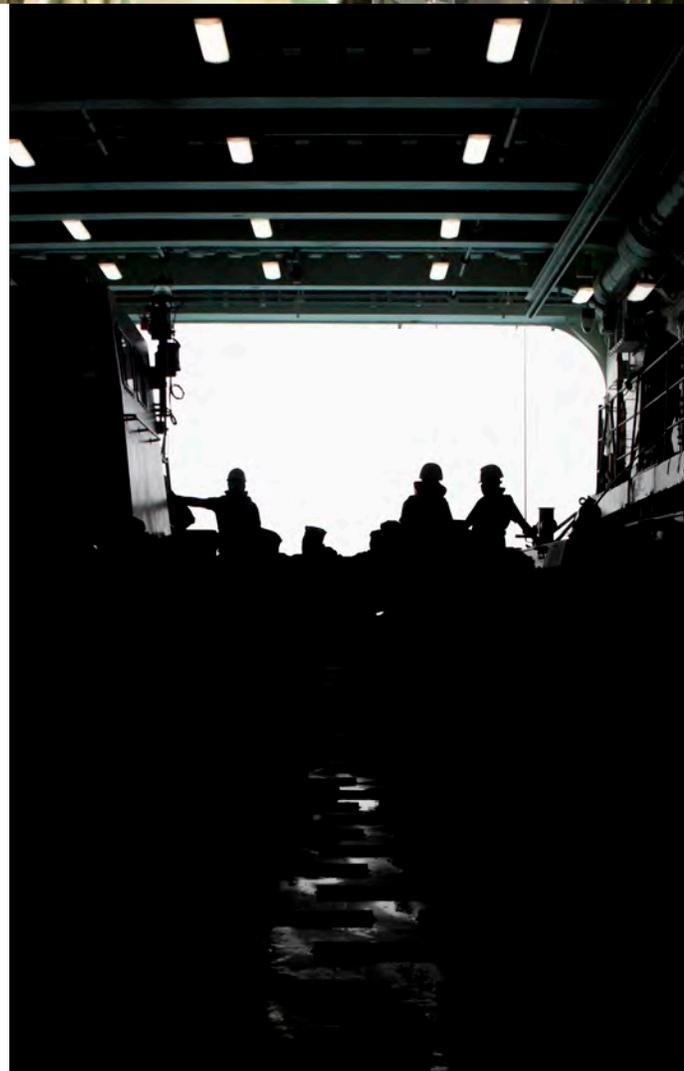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하며 필요시, 전투를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정전협정이 이행되고 있는 전후 한국의 역사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깨지기 쉬운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에서 전투작전을 지휘해 온 유엔군사령부가 지휘본부로 존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력의 전문적인 성장 및 발전은 한국 방위 구조의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계획분야에 한측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전쟁에서의 성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미8군 본부, 제1군단의 부속기관으로 개발된 연합작전계획참모부는 1971년 통합 야전사령부로 변경되었습니다. 1978년까지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된 양자 협의가 지속되다가 1981년 관련 계획은 취소후, 남아있던 최상위 사령부들이 연합참모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는 바로 이 한미연합팀에 의해 억지되고 있습니다.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연합군 사령부

연합사는 전투본부입니다.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이를 격퇴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사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합사는 한미 양국에 복무 중인 60만명 이상의 현역 군인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한국군 예비역과 미국 및 한국 외의 전력 제공국에서 배치되는 약 350만명의 추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또한 연합 공군, 지상군, 해군, 연합해병 구성군사령부, 연합 특수전사령부 등을 통해 통합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력은 각 구성군에 따라 연합군사령부에 투입될 것입니다.

연합사는 미 4성 장군이 지휘하며, 한국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 전반에 걸쳐 양국의 인력배치는 매우 명확합니다. 한 참모부의 부장이 한국인인 경우에 차장은 미국인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합된 구조는 본부뿐만 아니라 구성군사령부 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의 전 구성은 지속적인 결합 및 공동계획, 교육훈련을 통해 전술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한국과 미국의 지휘소 훈련은 1976년에 “을지포커스렌즈” 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연합군사령관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의 명칭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훈련인 “을지”라는 명칭 유지를 희망했고, 훈련명은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연합군사령부의 병력과 주요 구성, 배속 및 증강 인력이 최첨단 ‘위게임’ 형식의 컴퓨터 모의실험과 인프라 지원을 활용하여 훈련하는 연례 연합합동군사훈련입니다.

불시 비상 경계 경보, 소집, 작전 준비태세 점검은 부대 단위에서 한미 군대의 전투 대비태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실질적인 한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야심찬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구매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을 통해 장비개선에 큰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향한 미국의 노력에는 보다 새롭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 향상된 이동성과 헬기 공수 능력, 폭넓게 증대된 대장갑 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부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장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은 중대부터 사단까지 전 제대의 지휘경험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투 부대를 지휘했다.



최병혁 육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자 지상구성군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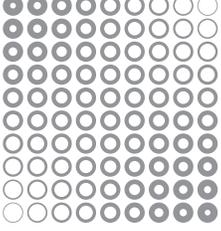


마이클 A. 빌스 중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참모장

빌스 중장은 참모장 부임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작전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장군의 지휘하에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연합군사령부는 한미의 군사자산을 배치 및 동기화하는 통합된 연합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본부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독특한 군사 구조

견고한 한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연합사는 한국과 미국 행정 당국으로부터 전략 방향과 운영 지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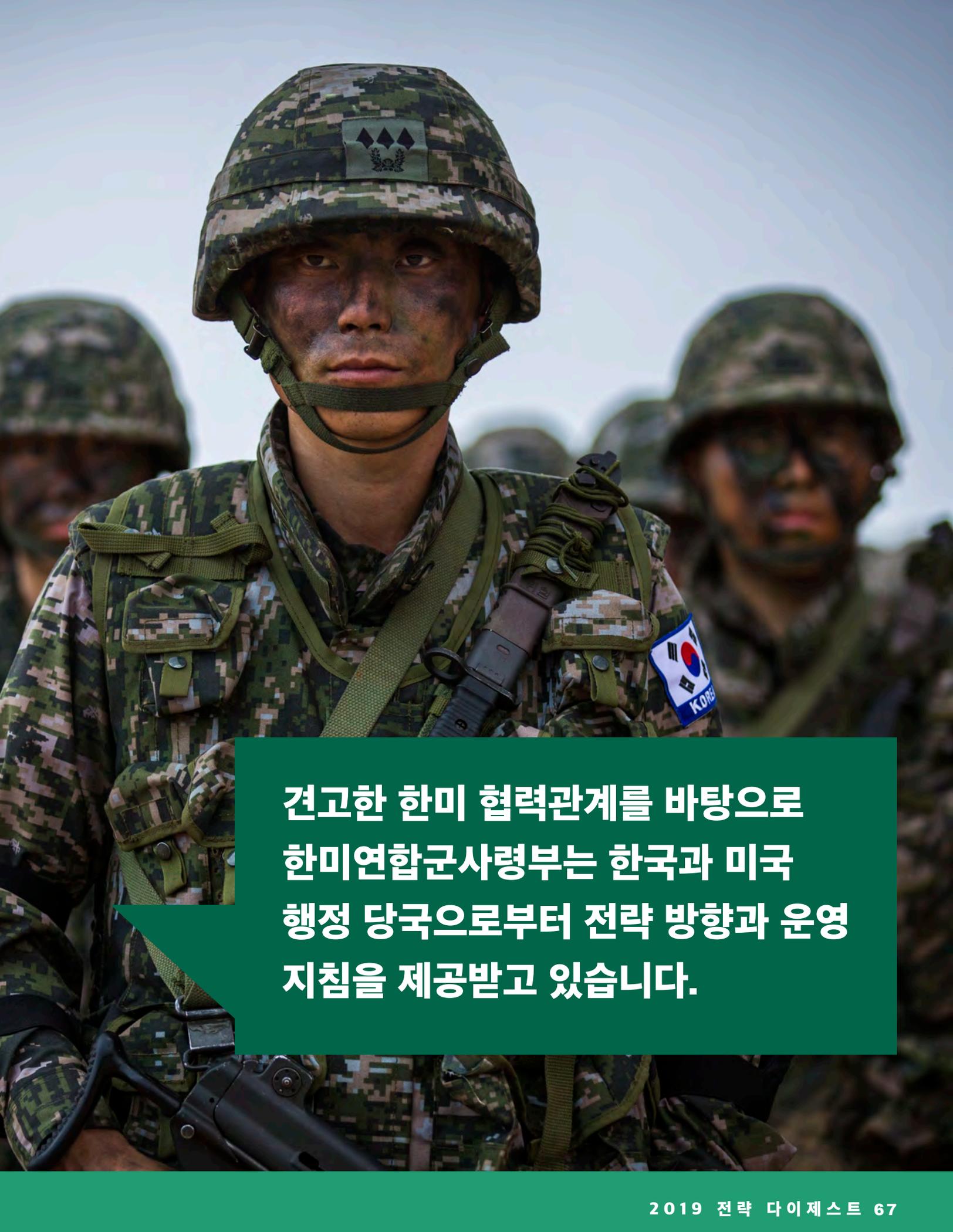
이러한 독특한 지휘 구조를 통해 연합사는 양국이 제공하는 일관된 합동 전략 지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의 구조, 우선순위, 조직은 한미 합참 간 연례 한미군사위원회의와 한미 국방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조율된 양국 합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 중심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연합사 역량을 활용하고 사령부가 동북아 내에서 안정세력으로 자리잡게 하는 주요통합지침을 연합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OPCON)

미국과 한국의 국방 지도자들은 연합사로부터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연설에서 전작권 이전과 연합군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선언하며,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한국 국방부의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10월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길을 열어두는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

68 쪽에 이어서 계속

한국 해병대가 2014년 2월 13일 태국 라용의 핫 야오 해변에서 코브라 골드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합 상륙 시연 리허설을 마치며 대형에 맞춰 서 있다. 한미 양국이 2018년에 참가한 코브라 골드와 같은 훈련은 지속적인 준비태세와 한미동맹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매튜 트로이어 병장)



**견고한 한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과 미국
행정 당국으로부터 전략 방향과 운영
지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66 쪽에 이어서

사령부 구조

한국과 미국이 꾸준히 역량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사의 지휘구조와 방향 역시 변화하는 전략 환경을 수용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연합사는 향후 몇 달에서 몇 년 이내에 계획된 이전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해 갈 것입니다. 이전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사령부를 옮겼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아직 서울에 남아있습니다. 두 사령부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연합사는 사령부 변혁을 통해 더욱 강력해 질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주한 미 해군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기지 공유, 그리고 한국 해병대 및 공군과의 지속적인 연합 훈련 파트너십을 통해 전술 제대로부터 연합사 본부 단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연합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미8군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상구성군사령부와의 통합은 앞으로도 양국의 육군 간 결속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연합사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동북아시아의 안정, 안보, 번영을 위한 하나된 목표와 신념이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모토처럼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한미 연합사단: 제2보병사단

제2보병사단은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주요 지상 전투부대입니다. 2보병사단 본부는 험프리스기지에 있으며 주요 임무는 고강도 전투 준비태세 및 경각심 유지로 한반도 내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2사단은 “제일의” 부대로서 DMZ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1제대 한국군 부대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1953

한미동맹의 탄생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구조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 불리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넓고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제7공군 스캇 럼프킨 원사가 2018년 11월 14일 한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한미동맹상을 수상하고 있다. 럼프킨 원사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공로로 상을 수여한 첫 미 공군이다. (사진제공: 미 공군 세르지오 A. 감보아 병장)

1. 한미 연합사단에 배치된 예반 사보린 중위가 2018년 4월 10일 최고전사 대회에서 도상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사단 내의 최우수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 카투사 요원을 뽑아 표창한다. (사진제공: 미 육군 마리암 트리스 병장)

2. 강습상륙함 USS 본험 리처드 (LHD 6) 의 함장 리치 르 브론 대령이 함대 시찰 도중 한국의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에게 비행갑판 역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미 해군 개빈 실드 상병)

3.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이 2018년 11월 10일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 지휘관과 만난 후 통제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령관 취임 이틀 후에 실시한 이번 야전순시에서 에이브럼스 장군은 한미동맹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재확인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알렉산드리아 크로포드 상병)

4. 2-2공격헬기대대 알파중대 줄리아 맥쿠식 대위와 UH-60 파일럿 멜리사 테일러 중위가 2018년 12월 1일 훈련 도중 한국 소방헬기가 한강에 추락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서울 교통신호탑에 사고를 보고하고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지점 상공에서 대기했다. 제2전투항공여단은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한미 지상군에 대한 공중 지원을 임무로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미 육군 비열 응우옌 제2전투항공여단 대위)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은 한미 및 유엔군 사령부 다국적 군의 연합훈련을 주도합니다.

1957년 7월 1일에 창립된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원합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연합사와 함께 병력 및 증원 부대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합동 연합합동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의 증거이다.
-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한다.
- 주한미군은 65년 넘게 한국 및 유엔사 전력제공국 파트너들과 함께 해 왔다.
- 주한미군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폭넓은 수단을 지원하며 강력하고 유능한 전력을 제공한다.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 썬더볼트 II가 2018년 7월 4일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 독립기념 자유축제 기간 동안 전시되고 있다. 4천5백명 이상의 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제51군지원대대 및 각종 지원 단체가 주최 하는 축제에 참가하여 각종 음식과 오락거리, 불꽃놀이 등을 즐겼다. (사진제공: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 레이첼 살피트라 중위)

오른쪽: 제2지원여단 제23 화학대대 제4화학, 생물학, 방사능 및 핵중대 소속 미군 병사가 2018년 12월 12일 캠프 캐롤에서 분대이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제2지원여단 애크라인 워더스폰 상병)

73쪽: 제3보병사단 제 기갑여단전투단 소속 병사들이 2018년 4월 4일 한국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레이더 여단은 제2보병사단을 지원하는 순환전차여단으로 한국에 있다. (사진제공: 미군 선 M. 킬리 중위)



주한미군의 임무

주한미군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훈련과 협력을 통해 연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정전 및 위기 상황에서 연합사 및 유엔사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 및 다국적군을 위한 연합전시증원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비전투 인원 소개 작전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국,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가 60년 이상 제공해 온 견고한 억지력은 한국이 번영하고 안정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억지력은 성공적이었으며, 더불어 비록 새로이 개발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역사적인 외교적 접근을 위한 환경 또한 조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은 오히려 국가

지도자들이 지역 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제공하는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에 일조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위해, 주한미군은 2018년도 일부 주요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 분량 등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령부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준비태세 및 깊은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훈련 방식은 동맹의 목표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합임무 필수과제 목록을 위한 작전, 전략 훈련의 완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령부 이전

2018년 주한미군은 사령부와 다수의 예하 부대를 미군에 더 나은 준비태세와 전투지원 잠재력을 제공하는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는 한미동맹의 강인함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겠다는 동맹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

74 쪽에 이어서 계속

주한미군 지휘부



**한국,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가 60년
이상 제공해 온 억지력은
한국이 번영하고 안정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장군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부임전 포트 브래크에 위치한 미 전력사령부의 22대 사령관직을 수행했다.



케네스 S. 윌스박 중장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윌스박중장은 전투비행대대, 작전대대 등을 지휘하였으며 합동항공작전본부 작전본부장,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본부장 등을 포함한 참모직을 역임했다.



스티븐 C. 윌리엄스 소장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윌리엄스 소장은 ‘남부감시작전’과 ‘이라크 자유작전’간 수행한 260시간 이상의 전투비행을 포함, 3천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보유한 최상급 비행사이다.



월터 A. 타갈리쿠드 주임원사 주한미군 최선임 부사관

타갈리쿠드 주임원사는 보병으로 미 육군 주임원사학교를 졸업했으며, 훈공장과 성 모리스 훈장을 수여받았다.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72 쪽에 이어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

또한 2018년에는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안보협의 회의 기간동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협의 회의가 1968년 5월 28일 처음 열린 이래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안보 환경의 잠재적 변화를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넓고 깊은 미국군대의 역량을 꾸준히 제공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흔들림없는 역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위: 제2지원여단, 제2보병사단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이 2018년 9월 18일 한국 워리어 베이스 근처의 몬테나 사격장에서 목표물 대상으로 실사격훈련 중에 있다. 이 사격 훈련에서 병사들은 주야 자격사격시험을 통과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2지원여단 애들라인 워더스폰 상병)

제2전투항공여단 2-2공격헬기대대 전사들이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훈련중 UH-60 블랙 호크에 연료를 보급하고 있다. 미 육군은 우리 병사들이 “당장 오늘밤이라도 싸울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수단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준비태세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진제공: 미 육군 코트니 데이비스 병장 제2전투항공여단 공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2018년 7월 11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미 공군 제51정비전대에서 표준적재대원을 이끄는 나다니엘 아리 병장이 2018년 11월 2일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적재 작전 탄약을 항공기에 적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있다. 대원들은 새로운 적재 작전 방법을 수행한 이후 기록적 시간 내에 탄약을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었다. 제51군수전대는 2017년 정비효율대회에서 우승했다. 팀 수상은 임무 성취도, 정비 자원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정비 부대원을 위한 삶의 질을 잘 보여준다. (사진제공: 미 공군 일리아나 A. 에스카로나 일등병)

혁신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지속적인 혁신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혁신팀은 사령부 내에서 실험을 주관하고, 협업을 장려하며, 새로운 사고를 고취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을 강화하고, 적의 침략을 방어하며, 필요시에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의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령부는 새로운 역량을 활용하고 방위 관계부처 및 기관, 학계 파트너와 긴밀한 협조하에 혁신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력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사령부의 업적 가운데, 주한미군 대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계획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 에너지부의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사령부는 공공보건 비상사태 및 재난에 준비, 대응, 복구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과 공공의료 대비체계에 중점을 둔 신기술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와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국방

주한미군의 소규모의 기민한 조직 혁신 전문가 그룹이 국방고등연구사업국 (DARPA), 국방부전략능력처(SCO), MD5-국가안보기술





엑셀러레이터, 육군과학위원회, 신속 반응 기술 연구소(RRTO), 합동능력기술시범(JCTD) 등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국방디지털서비스(DDS)는 민간 부문 모범 훈련과 능력을 통합하는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를 배치하기 위해 사령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의 파트너십은 국방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사령부에 도움이 되고, 작전 환경에서의 역량을 입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 태평양 육군의 협조하에 8개월 간 신속역량조직(RCC)이 조직됐고 한반도에는 영구적인 신흥역량위원회(ECC)가 설립되었습니다. 신속역량조직(RCC)과 신흥역량위원회(ECC)는 주요한 역량 및 기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협업을 도입했습니다.

제694정보감시정찰전대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반도 최초의 군사 중심 혁신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정보, 감시 및 정찰전대 항공근무자에게 혁신을 주도하고 임무를 강화하며, 업무 관련된 문제에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전역 혁신 공간이 이 험프리스 기지에 건설되었습니다.

산업계

업계 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팀워크와 대화를 통해 사령부는 상업적 관행과 지식이 군의 해법 모색에 포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보잉 디펜스, 제너럴 아토믹스, 마이터 코퍼레이션, 옴솔루션 및 레이시온사가 사령부의 혁신업무를 지원했습니다.

학계

조지아 공과대학교(GTRI), 스탠포드 대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와의 학술 제휴를 통해 사령부 혁신 전문가들은 이 우수한 대학들의 지식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78 쪽에 이어서 계속 ▶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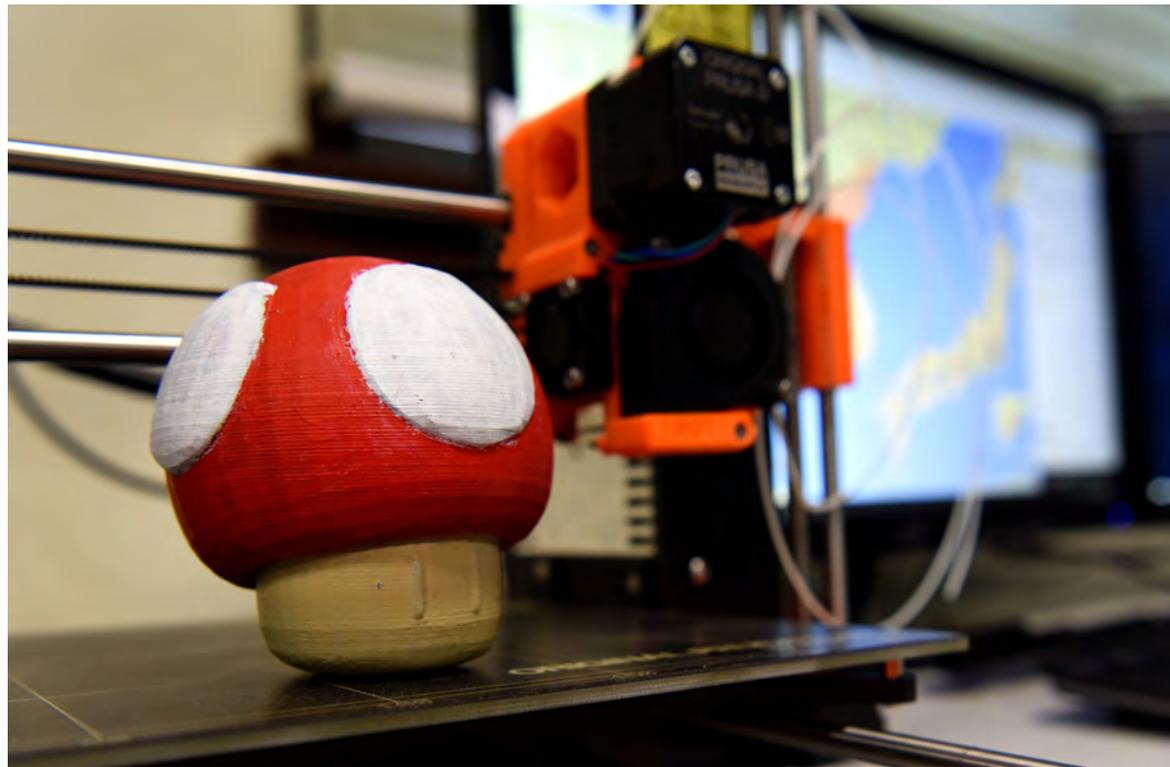
77 쪽에 이어서

향후 계획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첨단 기술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영역에서 대두되는 위협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사령부 혁신 역량은 정보, 치명성, 상호 운용성 및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한국군이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방위 개혁을 추진하고 게임 체인저를 모색함에 따라, 사령부는 합동군사업무단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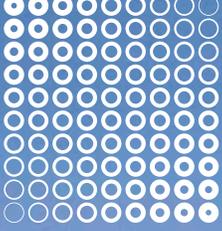
통합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유엔 파견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사령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가능케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위: 2018년 6월 26일 오산 공군기지 한국혁신연구센터(KIRC) 개관식에서 3D프린터의 성능 시현을 위해 3D로 출력한 버섯. KIRC는 한반도의 첫 군사중심 혁신 연구실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공군대원들에 최첨단 장비와 창의력을 고무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진 제공; 미 공군 켈시 터커 상병)

79쪽: 대한민국 해군 임성수 상병이 진주만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2018 환태평양 혁신박람회(BEMR연구소의 V2E 가상현실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상훈련 환태평양합동연습은 고유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며, 해로 안전과 세계 해양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사진 제공; 미 해군 저스틴 R. 파치코 병장)







[INDOP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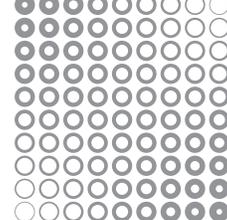
주한미군사령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창설 72주년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가장 크고 오래된 지리적 전투사령부다. 주한미군은 한국 동맹을 지원하며 그 유산의 일부가 된 것에 긍지를 갖고 있다. 사진에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 76)함이 2018년 9월 17일 필리핀해에서 실시된 2018 용감한 방패 훈련 도중 공군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 전투기와 해군 F/A-18 호넷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항공모함 타격단이 편대를 이끌고 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금번 훈련은 해군, 공군, 해병대 간의 공동훈련의 통합에 중점을 둔다. 이 훈련은 2006년에 시작된 용감한 방패 훈련의 7번째 연습이다. (사진제공: 미 해군 채드 M. 버틀러 하사)



제21보병사단 제1대대 소속 미군 병사가 2018년 4월 6일 한국 영평리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포스 온 포스 훈련 도중 제압사격을 하고 있다. 25보병사단 요원들은 전략적 사고, 기동을 활용하고 사전 배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포스 온 포스 훈련에 참여한다. (사진제공: 엘리자베스 브라운 상병)



[주 한 미 군사령부]



미8군

미8군은 한반도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주한미군의 지상군구성군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8군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외교 주도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 연합조직으로서의 전환을 구축하고 유지하며 한국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동안 미8군은 한국작전전구(KTO)를 설정하고 한반도에서 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고 확신할 다양한 우선순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 육군과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핵심 역량의 결함을 파악하여 한국작전전구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정보, 화학 및 생물학적 방어, 방호, 이동성, 의료 전력, 인력 관리 등 한국작전전구의 준비태세를 유지시켰습니다.

준비태세

순환배치부대는 미8군의 준비태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8군은 모듈식이며 확장 가능하고,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속 전개 가능한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작전전구 전력구조에 맞춤형 융통성을 보장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순환배치로 더 많은 병사들이 한국과 그 지역을 경험할 수 있고, 양국 육군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되며, 또한 세계적 대응 및 지역적 참여라는 미군의 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환배치부대에는 기갑전투여단(ABCT), 다련장대대, AH-64 아파치 헬리콥터로 무장한 중공격정찰헬기대대 등이 포함됩니다.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미8군의 역량 및 순환배치부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미8군은 초반 17개 중대의 준비태세 검증을 위해 사전 배치

84 쪽에 이어서 계속 ▶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EIGHTH ARMY



83 쪽에 이어서

장비인출 훈련과 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및 교육은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2018년 봄, 미8군은 임무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전시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연합전시증원연습, 대량살상화학무기 제거 작전, 비전투요원 후송작전, 전구지원 등을 포함하는 키리졸브-18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8군은 외교적 노력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일부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을에 걸쳐 소규모 및 장교 단위의 훈련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현격히 강화했습니다. 일례로 연례 해상 대특수작전부대훈련은 해상 특수작전부대 대침투 대응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전구 형성

미8군은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변화와 사령부 이전 등을 주도하며 미래를 위한 조직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부분의 순환 기간동안에 군 예하 여단 전투단 및 의료시설의 험프리스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역지력, 방어태세 강화 일환으로 험프리스 기지와 대구 기지를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현대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107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연합훈련에 더하여, 미8군은 48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 주도의 연합

지상군구성군 사령부에 배치하고, 한국군 준장을 미8군 본부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사령부의 야심찬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미8군과 한국군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본부인 연합 지상군구성군 사령부는 동맹 강화를 위한 기본 요소이며, 2019년에는 연합군 사령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미8군과 한국군은 2018년도 한해 연합병력, 시설운영, 작전계획, 사령부와 지휘 체계의 상호 운용성,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등을 포함한 연합 지상구성군 사령부 운영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미8군은 연합 지상군구성군 사령부 부참모장인 앤드류 죽넬리스 준장 등 능력있는 다양한 장교 및 부사관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미8군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목표로 연합 8군사령부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미8군의 첫 한국인 부사령관인 김태업 준장이 환영속에 취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8군 대원들은 한국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8군의 견고한 헌신을 보여주며 군사분계선에서의 경비초소 폐쇄 및 지뢰제거 작업을 위해 정찰대, 기술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포괄적 군사분야협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 병사들이 9월 11일 험프리스 기지에서 9/11 추도 럭마치에 참여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럭마치와 시합을 통해 9/11 과 국가의 방위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한다. (사진제공: 제20 공보파견대 마리암 트리스 병장)
2. 제 1기갑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제1야전포병연대 4대대가 2019년 1월 25일 한국의 몬타나 사격연습장에서 M240/249 자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1기갑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공보 알론 험프레이 병장)
3. 로널드 마이어스 준위가 2018년 5월 14일 미8군 최고 전사 대회에서 야간상륙항해 경기 중 지도 위에 통과지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미8군 내의 최우수 장교, 준위, 카투사를 선발해 표창한다. (사진제공: 제20공보파견대 메리엄 트리스 병장)
4.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지원여단 사령부팀이 2018년 11월 15일 한국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육군 최선임 부사관 다니엘 데일리 원사와 미8군 릭 메리트 주임원사가 체력단련시간을 마련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2지원여단 애들라인 위더스푼 상병)

미8군 지휘부



마이클 A. 빌스 중장 미8군 사령관

빌스 중장은 부임전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의 작전참모부장 직책을 수행했다.



다니엘 J. 크리스찬 소장 미8군 지원 부사령관

크리스찬 소장은 35년 이상 복무중으로, 부사령관 부임전 제 412전구공병사령부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패트릭 J. 도나휴 준장 미8군 작전 부사령관

도나휴 준장은 부임전 뉴욕 포트 드럼의 제10산악사단의 작전 부사령관과 사령관 대행직을 수행했다.



김태업 준장 미8군 한국 부사령관

김 준장은 부임전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연합사/지구사 기획참모차장을 역임했다.



제이슨 슈미트 원사 미8군 주임원사

슈미트 원사는 과거 미 포트 라일리 기지, 작전사령부, 태평양 지역 시설 관리 사령부 등에서 최선임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EIGHTH ARMY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

제2보병사단은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주요 지상 전투부대입니다. 제2보병사단의 주요 임무는 고강도 전투 준비태세 및 경각심을 유지하여 한반도 내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제2사단은 “제일의” 부대로서 DMZ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군 제1전선부대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9원정 지속지원 사령부

제19지원사는 미8군의 화력장비 군수지원 및 한반도 내 전투력 유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19지원사 본부는 대구 캠프 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예하 사령부는 한반도내 4개 작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통신여단

제1통신여단 본부는 용산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하부대는 한반도 전역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제1통신여단은 주한미군 및 한국내 구성군사 본부의 전략적, 기술적 통신 및 정보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통신여단은 전 AFKN TV, FM 및 AM 라디오 전송시설을 운영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5방공포여단

제35방공포여단 본부는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엔사, 연합사령관의 지정된 자산을 운용하여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5방공포여단은 패트리엇, 어벤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5방공포여단 예하부대는 캠프 케이시 기지, 수원, 오산, 군산 및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65의무여단/ 제65의무분견대

제65의무여단의 주요 임무는 미 본토 의무기지의 전략적 연결부대가 되는 것이며, 분쟁 발생 초기 신속한 작전 및 기술적 수준의 미 육군 의무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차적 임무는 한국전구에서 예비속된 의무부대에 전구급 지휘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106의무파견대는 평시에는 한국 전역의 동물 의료, 식품 안전 및 방어 임무를 담당합니다.



501군사정보여단

제501군사 정보 여단은 미 육군 정보 보안 사령부 예하 부대로 미8군 본부에 정보 및 보안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단의 임무는 합동 및 연합 전투부대에 전투 정보 및 다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단 참모부 및 한반도 전역에 부대를 둔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1지원단

2501지원단은 곧 창설되는 연합 지상군구성군 사령부를 지원하여, 미8군과 한국군 간의 지속적인 연락 역량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 정보교환 및 전투 역량의 통합을 이뤄 임무지휘와 노력의 통합을 가능케 합니다.



2502지원단

2502지원단은 대구 캠프 헨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력은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한미군, 미8군, 제2작전사령부 및 그 예하 부대를 포함하여, 연락, 협력 및 동기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3전투협조 파견대

제3전투협조 파견대는 항공작전센터 안의 지상구성군사령부 사령관과 미 육군 사령관 및 공군 구성군 사령관을 대표하여 한반도 작전전구내 공군력과 육군의 화력 및 기동 계획을 동기화합니다. 제3전투협조 파견대는 또한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파견단을 통해 한국작전전구의 두 전투비행단을 직접 지원합니다.



미8군 지원단

미8군 지원단은 비무장지대(DMZ)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17개 중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미8군 지원단은 미8군과 주한미군에 중장비 수송차량, 실사격지원, 정비, 의무후송, 항공교통관제, 수상생존, 언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반도내 2,185 명의 한국인 지원단 인원의 지휘통제를 담당합니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한-미 양국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대 임무는 공동경비구역 경계, 비무장지대 울렛 관측소 인력관리, 판문점 관광 프로그램 등의 운영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 대한 경비 및 민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4-58 비행장작전대대

4-58 비행장작전대대는 가디언 항공 정보 센터 및 전술시설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항공 교통 관제를 담당합니다. 또한 일부 격오지 시설에 대한 정비작전을 실시하며 전시에 항공교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으로 전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미육군 범죄수사 사령부 한국지부

한국지부는 주한미군, 미8군, 주일미군을 지원하여 중대, 민감, 특수 관심 문제에 대한 육군, 합동 및 연합 수사를 실시하고, 범죄정보, 군수경계, 마약퇴치, 대테러, 부대방호, 방호군무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미군 지휘관들을 지원합니다.



미8군 부사관학교

미8군 부사관학교는 신규 진급자들에게 기초 지휘통솔 및 부사관의 책임을 교육하며, 한국 신병들의 카투사 교육을 담당합니다. 미 육군 및 민간인들이 교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8군 군악대

미8군 군악대는 한반도 내 수천 명의 미8군,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을 담당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 국가까지 찾아가 미 육군 및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8군 본부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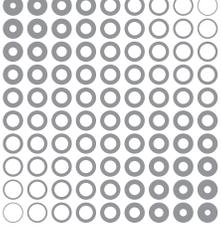
미8군 본부대대는 미8군 사령관 및 참모들의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8군 본부에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부대대는 지원중대본부, 작전중대, 정보 및 지속지원중대, 미8군 군악대 등 예 하 4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한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 연락반 (ALE-K)

주한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 연락반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크에 위치한 미 육군 특수전 지원사령부를 위해 전방 전개된 군수계획 및 협조반입니다. 연락반의 임무는 한국작전전구로 전개되는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를 위한 군수지원이 원활히 계획 및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한 연락반 본부는 서울의 캠프 코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훈련지원반

주한미군 훈련지원반은 미8군 G-37 훈련처 예하기관으로 본부는 캠프 코이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미8군 및 예하부대에 대한 전방위적 훈련지원수단 제공입니다. 주한미군 훈련지원반은 연합전시증원(RSO&I)을 시행중인 부대에 전술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전개작전단을 설립하며, 의명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전구개입전략 지원을 위한 기타 전술지원체계 제공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한미군사령부]



미7공군

미7공군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공군 구성군사령부 미 태평양공군의 주요전술 공군부대입니다. 미7공군은 위기 및 전시에 주한미군의 공군 구성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18년은 한, 미, 북한의 태도 변화와 외교노력의 확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된 한해였지만, 한미 양국의 공군은 효율적인 공군 역량을 한미동맹에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공적 임무 완수의 핵심 요소인 상호운용성을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공군 구성군인 미7공군은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을 위해하는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며, 침략 억제와 정전협정 유지라는 임무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는 결의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약 9천명의 공군 병력이 2개의 주요 작전기지와 5개의 공동 작전기지에서 한국 공중전력팀의 미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산기지는 미7 공군 본부와 F-16 블록 40 파이팅 팰컨과 A-10 썬더볼트 II 를 운영하는 제51전투비행단, 제607항공작전지원전대, 제607항공작전센터, 제694 정보감시정찰전대, U-2 드래곤 레이드를 운용하는 제5정찰비행대대 등을 포함한 예하부대의 본거지입니다. 제8전투비행단은 군산기지에서 F-16 블록 40을 운용합니다.

지난 2년동안 한국 공군은 최고의 병력, 항공기 및 항공기지 준비태세를 구현해 냈습니다. 사령부는 한국작전전구의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공군 배치를 위하여 전쟁예비물자 부족을 채우고 전투 역량을 재건하였습니다. 구성군은 ▶

90 쪽에 이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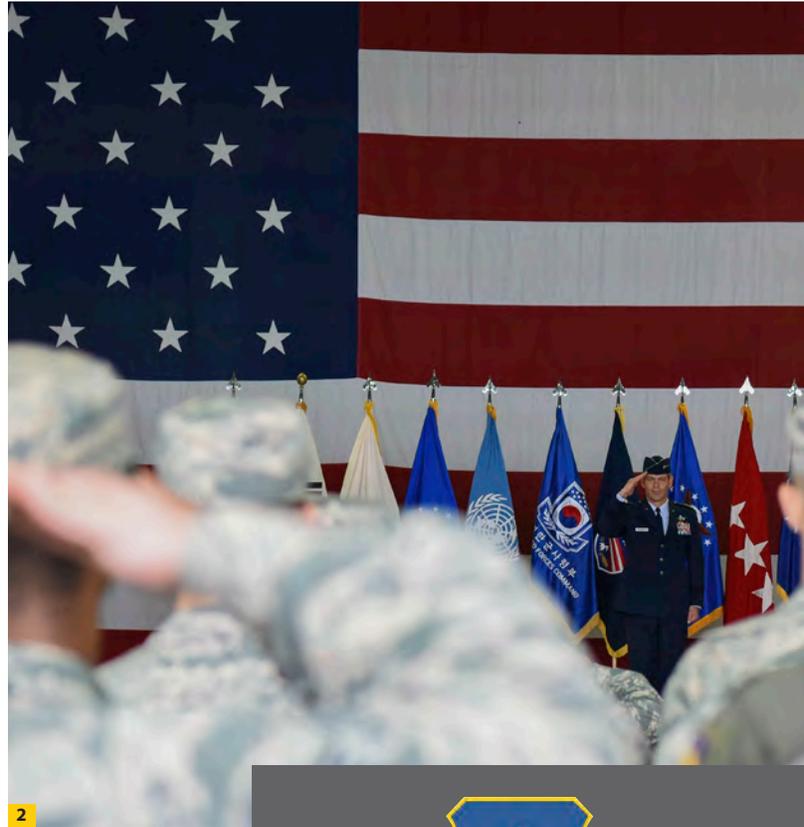


왼쪽부터: 미 공군 중장 케네스 윌스박 미7공군 사령관, 제이슨 달 미 공군 대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장군이 U-2 드래곤 레이디의 기장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미 공군 티모시 디스키나트 병장)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SEVENTH AIR FORCE



88 쪽에 이어서

우리의 전투 살상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신무기를 도입했으며, 합동화력통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 구성군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성군은 미 국무부의 대북 최대압박 전술의 지원 하에 다양한 연대를 통해 유연한 억지력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긴장고조를 완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견고한 헌신을 통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18년의 한반도에는 전례없는 평화의 기회가 조성됐지만, 미7공군은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준비태세를 확립을 위한 한미공동의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미7공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공군 자산 통합과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두는 창의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교적 상황에서, 미7공군은 국가최고사령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제공하고, 미국 외교관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미 국무부 주도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7공군은 한국에서 계속 기반시설과 준비태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상상태인 ‘뉴노멀’이 형성되면 이에 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국가방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민첩한 실행력, 탄력적 운용역량, 적극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7공군은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항공, 우주 및 사이버공간 역량 확충에 전념해나갈 것입니다.

미7공군이 미래를 위해 탄력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함에 따라 구성군은 전력 개선에 전념함으로써 전투 신뢰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 성공에는 훈련 및 혁신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증진된 계획과 대비태세를 통해 합동군의 치명성 증강이



제51전투비행단



제8전투비행단

제607항공작전지원전대

제607항공 및 우주작전센터

제621항공통제대대

제694정보감시 및 정찰전대



요구됩니다. 경쟁이든 갈등이든, 미7공군 대원들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임무수행력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미7공군과 한국 공군은 앞으로도 자유의 최전선에서 동일한 목표 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한미 공군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를 안전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

1. 제8경계부대비행대대 공군 대원들이 2018년 8월 29일 대한민국 공군 공군기지 태평양 공군 사령관 CQ 브라운 주니어 대장의 순시간 모의 적군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스테판 알바레스 상병)
2. 미7공군 사령관 케네스 S. 윌스박 중장이 2018년 8월 27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대원들에게 첫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사바나 L. 워터스 상병)
3.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2월 8일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년간 부통령의 두번째 한국방문이었다. (사진제공: 미 공군 프랭클린 R. 라모스 병장)
4.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컨이 2018년 7월 27일 북한 원산에서부터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이송하는 미 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III를 호송하고 있다. 이번 작전으로 미국 비행기가 65년만에 북한에 처음으로 착륙했다. F-16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의 제36 전투비행대대에, C-17은 하와이 진주만-히컴 합동기지의 제535 공수비행대대에 배속되어 있다. (사진제공: 미 공군, 레이첼 맥스웰 병장)

미7공군 지휘부



케네스 S. 윌스박 중장 미7공군 사령관

케네스 에스 윌스박 중장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유엔군사령부 공군 구성군사령부 사령관, 연합군사령부 공군 구성군사령부 사령관, 한국 오산기지 태평양공군 미7공군 사령관이다. 윌스박 중장은 또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미국 대표이다. 부임전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 제11공군 사령관직과 미 중부사령부 작전국장을 역임했다. 또한 전투비행단 두 곳, 작전단 한 곳, 전투비행대대 한 곳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대의 지휘경험이 있다. 윌스박사령관은 5천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최상급 파일럿이다.



랜싱 R. 필치 준장 미7공군 부사령관

랜싱 R. 필치 준장은 주한미공군 미7공군 부사령관이며 한국 오산공군기지 공군 구성군사령부의 참모장이다.



필립 B. 허드슨 주임원사 미7공군 공군주임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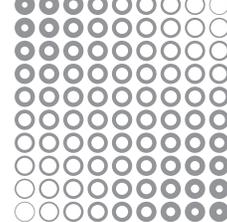
허드슨 주임원사는 사기, 복지, 훈련, 임무 준비 및 9천5백명 이상의 전투 준비 병력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관한 조언을 한다.

미7공군

미7공군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공군 구성군사령부 미 태평양공군의 주요전술 공군부대입니다. 미7공군은 위기 및 전시에 주한미군의 공군 구성군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3정찰대대가 11월 12일 낙하산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고도 강하 저고도 산개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 주둔한 제3미해병원정군은 연례 군사 준비태세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제공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훈련 시설을 이용한다. (사진제공: 제3정찰대대 대원)



[주한 미군 사령부]



주한 미해병대

주한미해병대는 지난해 새로운 차원의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며 2019년에도 이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한 미해병대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한반도의 모든 해병대 전력배치를 위한 작전수준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배치에는 지휘통제 (C2) 역량, 연합전시지원, 작전 수준의 군수계획, 통합기지 운영지원 부지의 설문조사와 토목공학 평가 및 검증, 한미 해병대간 전구안보협력, 대테러 및 부대방호를 위한 한반도내 해병대를 지원하는 연합 후방지역 계획 및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군사운용은 연합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치명성과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에 기여합니다.

주한 미해병대는 1995년 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사령부의 목적과 범위에 맞게 진화해 왔고, 작년 한해 동안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사령부는 미

태평양해병대의 연락반에서 전담 장성과 자체적 필수 임무 과업을 지닌 독립된 구성군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 사령부는 본래 소규모 대원과 사령관으로 구성되어 주한 미해병대 사령관과 연합사/주한미군 기참부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미 해병대사령관은 최근 사령부의 증대되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은 또한 주한 미해병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연합군사령부 연합/기참부 담당 장성이 각자 고유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된 해군 장성을 파견하였습니다.

주한 미해병대는 한국해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계획, 훈련, 역량 개발이 양국 군의 작전 준비태세를

94 쪽에 이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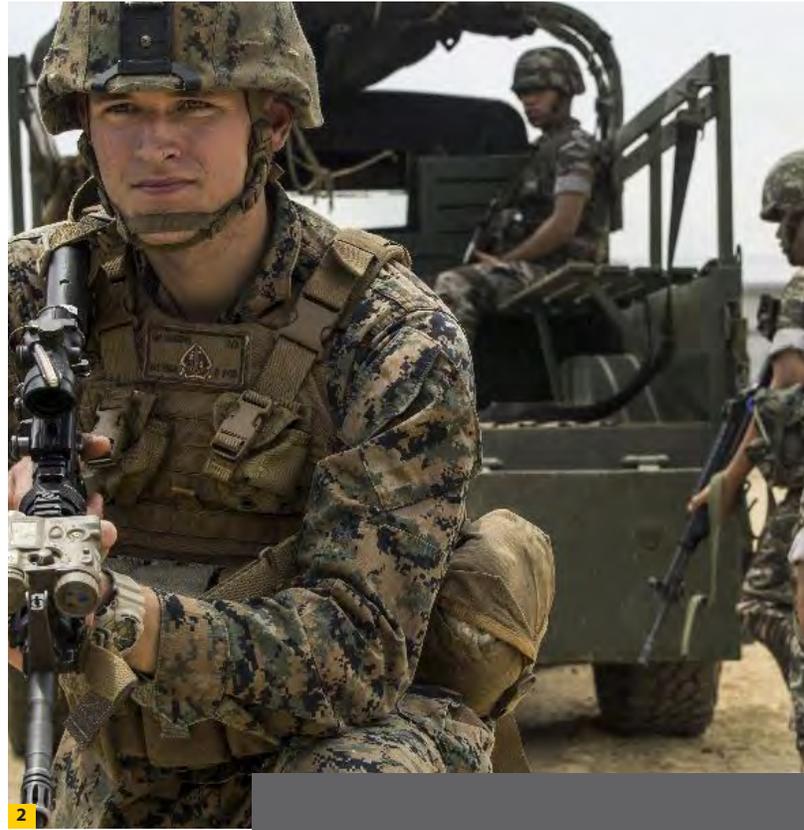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 미군 사령부

U.S. MARINE CORPS FORCES KOREA



1



2

93 쪽에 이어서

최적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은 주한 미해병대사령관을 한국 해병대사령관에게 그의 대리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해병대는 또한 정전 기간동안 주한 미해병대사령관이 연합 해병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복무하기로 한국해병대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주한 미해병대 대원들은 한국해병대 측 관계자와의 일상적 소통을 통해 연합군사령부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동기화하고 합동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 교류

주한 미해병대는 항법 및 전술항공통제를 위한 지침을 한국해병대에게 제공하고, 훈련을 조율하며 한국해병대의 발전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해병대 사이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개별 훈련 부대 차원까지 이어지며, 파트너 훈련

부대는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연합 해병대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 해병대는 소대부터 여단급 훈련까지 17차례의 해병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2만명 이상의 미 해병이 참가했습니다. 해병대 연합훈련에는 제3해병원정군 소속 미 해병대 부대, 한국 제1해병사단 및 제2해병사단,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참가했습니다. 해병대는 포항, 백령도, 김포, 평창과 스토리, 로드리게스 사격 훈련장을 비롯한 한국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군사작전을 뒷받침합니다. 한미 해병대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위하여 해병 대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했지만, 성공적인 연합훈련으로 2018년도에 24차례의 개별 훈련을 통해 연합훈련의 빈도와 유형 측면에서 성장을 이끌어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는 각각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크고 강하며, 이 해병대의 연합 역량과 결합된 능력은 한미 동맹군에 전대미문의 수육양용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올해 훈련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합동역량, 개발확대와 연합군 간의 현재와 미래 전투 공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였습니다.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는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크고 강하며, 이 해병대의 연합 역량과 결합된 능력은 한미 동맹군에 전대미문의 수육양용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전 주한 미해병대 사령관 패트릭 J. 헤머스만 소장(왼쪽), 주한미군 기참부장 제임스 W. 류크만 소장(가운데 왼쪽), 한국군 장성,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오른쪽)가 2018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주한 미해병대는 주한미군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공통된 유산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협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나다니엘 한스컴 병장)

2. 미 해병대 부 M. 히긴스 상병이 2016년 7월 11일 한국에서 개최된 해병대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한국 해상 교환 프로그램 16-11 행사 호송호위훈련 도중 한국 해병대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군의 훈련과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최첨단 전술 및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아마이아 우나누 일병)

3. 주한 미해병대는 2018년 11월 9일 미 해병대의 243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축하 일환으로 해병대 창설기념 무도회를 열어 해병대 관계자, 한국의 군 및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눴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나다니엘 한스컴 병장)

4.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B. 넬러 사령관이 2018년 9월 5일 워싱턴 마린 베렉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해병대 사령관인 전진구 중장에게 뛰어난 복무와 성과로 탁월한 공로를 수행한 이에게 주어지는 훈공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해병대 올리비아 G. 오티즈 병장)

주한 미해병대 지휘부



브래들리 S. 제임스 소장
주한 미해병대 사령관

제임스 소장은 부임전 미 해병대 예비군, 북부 해병군, 제4해병항공단 사령관을 역임했다. 제임스소장은 KC-130 E/F/R/T 등을 조종했으며, 5천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티모시 G. 버튼 대령
주한 미해병대 부사령관

버튼 대령은 30종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해 왔으며 F-18A-F에서 모든 전술 및 교관 자격을 취득했다.



마이클 R. 소시도 원사
주한 미해병대 주임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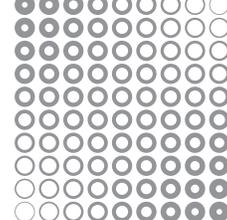
소시도 원사는 과거 미 육군, 미 해군, 한국해병대가 함께한 13년도 쌍용훈련 동안 해병공지기동대 원사로 복무한 바 있다. 소시도 원사는 2016년 12월 주한 미해병대 주임원사로 부임했다.

주한 미해병대

주한 미해병대는 주한미군 소속 미 해병대 구성군입니다.



주한 미해군사령관 마이클 보일 준장이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새로 임관한 한국 해군 장교들을 축하하고 있다. 주한 미해군과 주한 해군지역대 대원들과 함께 보일 준장은 신임 장교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돕기 위해 졸업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채드 엠 버틀러 하사)



[주한 미군 사령부]



주한 미해군

주한 미해군 사령부는 훈련, 작전 계획 및 평가를 통해 최대한의 합동 준비태세를 보장합니다.

주한 미해군은 부산에 있는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위치하여, 한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해상 준비태세 강화, 상호운용성 증진, 해양군사력 개선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해군 구성군으로서 주한 미해군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요한 해상 고문 역할을 하며, 한반도내 미해군 관련 사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전 기간 동안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연합군사령부 예하에서 해군구성군 부사령부를 맡고 있습니다.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해군구성군 부사령부로서 주한 미해군의 역할인 바다와 해변에서의 해군구성군의 합동 치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증진시키며,

한반도 밖의 미 해군과 한국 해군 사이의 주요한 연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해군 사령부는 유엔사 해군구성군으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다국적 해군의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한국의 미 해군 지역사령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약 5백명의 미 해군 인사와 아시아 본토의 유일한 미 해군 기지인 진해 함대지원부대의 해안 군사시설을 관리, 감독합니다.

연합 전투치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대잠수함전, 해상초계기, 지뢰전, 수륙양용전, 탄도미사일방어, 해상대특전사 훈련 등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다자간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해상

98 쪽에 이어서 계속 ▶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



97 쪽에 이어서

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한국 해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연례 대잠전협력위원회, 유엔사 해군구성군 지뢰제거 심포지엄 같은 주요한 포럼을 통해 동맹의 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더불어, 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미래의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구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 해군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항공모함, 방공구축함, 고속공격잠수함과 같은 미 해군 함정의 정례 입항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미 해군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입항간 군수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문 함정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구축을 활성화 합니다.

2018년 10월, 미 해군함정 로널드 레이건함은 한국해군이 주재하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역사적인 입항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

해군의 힘과 한국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주는 크나큰 성공이었습니다.

2015년 서울에 있던 주한미해군사령부 본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동안, 부산시는 주한 미해군 대원과 그들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들더라도 보람차게 복무하려는 미 해군 대원들 사이에서 '최고의 주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해군 대원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의 협력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며, 2019년에도 계획된 일련의 연합 해상훈련을 비롯하여 더욱 알찬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해군구성군은 견고하며, 나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향해합시다! □



주한 미해군사령부 지휘부부



마이클 P. 도넬리 준장 주한 미해군사령관

마이클 도넬리 준장은 메릴랜드주 캔트아일랜드 출신으로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해군학군사관으로 임관하였으며, 2002년에 해군지참대를 졸업했다. 해군 항공장교로서 F-14A/B/D 톱캣과 F/A-18F 슈퍼호넷을 3천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990건 이상의 항공모함착륙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조셉 캐리건 대령 주한 미해군 부사령관

뉴저지 와나크 출신의 캐리건 대령은 1993년 5월에 노틀담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를 받았고 해군학군사관으로 임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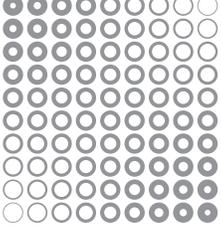
크리스티안 뎃체 원사 주한 미해군 주임원사

코네티컷 덴버리 출신의 뎃체 원사는 1989년 9월에 임관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신병교육과 기초전자학교 수료했으며, 일리노이스 그레이트 레이크스의 일렉트로닉스 테크니션 "A" 학교로 전입했다.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미 해군 선임사령부로, 주한미군사와 유엔군사령부의 해군구성군사령부입니다. 정전기간 중 주한 해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해군구성군 부사령부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1. 주한 미해군사령부 소속 대원이 2018년 6월 6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국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식 중 묵념을 하고 있다. 1956년에 처음 개최된 이 기념식은 한국전쟁 및 다른 주요 전장에서 전사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연례행사이다. (사진제공: 미 해군 윌리엄 칼라일 상병)
2. 미 해군 방공구축함 벤폴드(DDG 65), 유도미사일 순양함 찬슬러스빌(CG 62), 원자력 추진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2018년 10월 11일 한국 제주 연안의 2018 국제관함식에서 한국의 일출봉함이 이끄는 해상사열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관함식은 매 10년마다 실시되며 20여 외국 해군이 참가, 참관한다. (사진제공: 미 해군 윌리엄 칼라일 상병)
3. 제1항공모함 타격단 사령관 제임스 W. 킬비 소장이 미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한국 본부 입항 기념 선물교환식에서 한국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칼 빈슨 항공모함 타격단은 미 제3함대의 지휘 및 통제 기능 확장을 위한 미 태평양 함대 주도의 계획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예정된 서태평양 배치에 따라 입항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저메인 M. 랠리포드 병장)
4. 전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장군(오른쪽), 한국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장군(왼쪽)과 한국의 연합사부사령관 임호영 장군(가운데)이 2018년 3월 12일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 비행 갑판에서 비행작전을 시찰하고 있다.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은 70년 이상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선 M. 카스텔라노 병장)



[주한미군사령부]



주한 미특전사령부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통합군사령부로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아래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정전협정 위반시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기 위해 주한 미군사령관에 미 특수작전부대의 계획, 지원, 통제하는 합동 특수작전사령부를 제공합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2018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수행을 담당하는 작전 중심의 본부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특수작전부대 순환배치군의 임무 사령부
- 다수의 한국 기반 훈련을 통한 한국 특수전사령부와의 훈련 및 상호운용성 연대
- 위기 상황에서의 교전 계획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창설 이래 한미의 특수작전부대가 제도적으로 ▶

102 쪽에 이어서 계속



주한 미특전사령부와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가 2018년 2월 13일 연합 강하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가브리엘라 맥키니 소령)



SPECIAL OPERATIONS COMMAND KOREA



100 쪽에 이어서

연합 작전을 펼치기 위해 조직한 유일한 전구 특수작전사령부입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 한국 특수전사령부, 한국 공군 제 255 특수작전비행대,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은 각 연합 임무에 맞는 정기 훈련을 실시하며, 주한 미특전사령부의 제39특전파견대는 한미 특수부대 간의 상시 연락부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명령 후 수 시간 내에 전투에 투입될 수도 있는 복잡한 연합작전 환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수부대와의 통합을 바탕으로, 전 분야의 특수전을 실행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의 특수부대,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재래식 부대 및 특수부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한국 및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연합 특수전 구성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상호운용성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수부대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68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한미동맹의 핵심요소입니다. 1958년 이래 제39 특전파견대는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한반도에서 협력해왔으며, 현재는 미국과 한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시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각 특수전사령부의 현역 및 예비대 구성군은 한국에 배치되어 한국의 육해공군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의 합동특수작전연락반은 미7공군 및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공군구성군과 특수작전구성군의 활동을 지원 및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창설 이래 한미의
특수작전부대가
제도적으로 연합
작전을 펼치기 위해
조직한 유일한 전구
특수작전사령부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위기대응 및 한미 고유의 연합 특수부대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억제하거나 격퇴할 전략적 옵션을 한미 고위 지휘관에 제공하여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주한 미특전사령부 지휘부



오토 K. 릴러 준장 주한 미특전사령부 사령관

릴러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 특수작전구성군과 미특수작전 합동임무부대의 사령관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스테판 D. 화이트 주임원사 주한 미특전사령부 선임 사병 리더

화이트 주임원사는 합동 및 다국적 특수작전 역량, 상호운용성,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 한국 및 유엔사 전력제공국 관계자와 매일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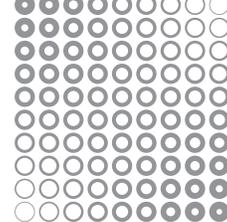
1. 제39특전파견대 병사가 2018년 4월 16일 연합 공정작전에 앞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가브리엘라 맥키니 소령)
2. 제353특수작전전대 대원이 2018년 5월 8일 비행훈련 도중 미 공군 CV-22 오스프리의 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조세프 픽 상병)
3. 한국 특수부대 대원이 탑승한 미 공군 CV-22 오스프리가 2018년 5월 8일 훈련 도중 한국 인천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브리엘라 맥키니 소령)
4. 한미 군인들이 2017년 3월 31일 한국 군산의 군산공군기지에서 공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가렛 스미스 상병)

주한 미특전사령부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2018년 내에 치명성과 유사시 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즉각적인 특수부대 전력 배치 능력과 치명성 증대라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주한 미특전사령부는 2019년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핵심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 한미 특수부대의 훈련, 상호운용성 및 계획을 강화하여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 준비태세 강화
- 한미 특수부대와 훈련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운용성 강화 기회 확대
- 미 특수부대와의 동기화를 통해 전력의 통합을 보장하고, 재래식 전투에 대한 특수부대 지원 및 상호운용성 강화
- 억제 실패시 즉시 위기 태세로 완벽 전환
- 캠프 험프리스 이전 완료와 한국 파트너와의 사령부 공동배치를 위한 변혁 및 이전 지속





[주 한 미 군사령부]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한국내 모든 미국방부 관련 기관의 기술, 설계 및 건설 전담 기관인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은 한국내 미군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태평양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 육군 극동 공병단은 미 육군이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그램입니다. 극동지구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남쪽의 부산, 진해부터 북쪽의 비무장지대까지 한국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주한미군의 군사 시설은 극동지구 공병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은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의 변혁, 재주둔,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와 면밀히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 채택된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공식적으로

험프리스기지와 대구기지를 주요 거점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새 주둔지를 지정했습니다.

미측 설계와 건설대행자인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부사령관인 게렛 코트렐 대령은 지난 2년간 한측 설계와 건설대행자인 정세옥 대령, 국방부-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박정연 대령 및 다른 한국 관계자들과 이전과 관련된 건설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세심히 협력해 왔습니다.

코트렐 대령은 험프리스 기지 개발 성공을 이끈 몇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역사와 함께한 오랜 시간이 관계의

106 쪽에 이어서 계속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소속 존 윌리엄스 주니어 하사가 11월 14일 험프리스 기지 내 극동지구 공병단 신축 본관에서 개소식을 지켜보고있다. 극동 공병단은 2018년 11월 기존 서울 주둔지에서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안투완 패리시)

[하나의 군대: 세 개의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USACE FAR EAST DISTRICT



105 쪽에 이어서

핵심 요소"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양측의 헌신이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코트렐 대령의 열정은 여러 대를 거쳐온 것이었습니다. 코트렐 대령은 "나의 할아버지는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렐 대령은 건설 도중에는 항상 충돌되는 사안이 있고, 따라서 양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경우 때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트렐 대령은 "한미 양국의 강한 협력적 관계와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코트렐 대령은 앞으로도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은 확립된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지구 공병단은 2018년 11월 기존 서울 주둔지에서 평택 험프리스기지로 이전했습니다.

효율성 향상

극동지구 공병단의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부는 최근 험프리스 기지 본부 이후 새로운 장비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부는 2018년 극동지구 공병단의 타 부서와 함께 서울의 구 기지에서 신 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부는 설계 및 건설에 있어 자체 품질보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전 세계 미 육군 공병단 단 8곳 중 한곳입니다. 또한 이 부서는 훈련 지원, 장비 검사, 한국측 관계사 검증 뿐 아니라 훈련 및 지식 공유를 통해 미 육군 공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사령관 테레사 솔로서 대령(오른쪽), 지역운영 부사관 데이비드 몬테스 상사가 2018년 11월 14일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 내 극동지구 본부에서 개소식 도중 부대 휘장을 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안투완 패리시)

2. 미 육군 병사들이 2018년 12월 3일 험프리스 기지 내 바커 필드 연병장에서 2018년 11월 30일 별세한 미국의 조지 H. W. 부시 제 41대 대통령을 기리며 매 30분마다 예포를 발사하였다. 이 의식은 국기계양식으로 시작하여 국기하강식으로 종료되었다. 올해까지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이 완공할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본부인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장군 발당이 뒤에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주한미군 마이클 C. 로치 병장)

3.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에서 훈련을 마친 한국 공병대원들이 10월 17일 한국의 비무장 지대에서 지뢰 제거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 육군 극동 공병단 안투완 패리시)

4. 왼쪽부터, 한국 설계와 건설관리대행자 및 국방시설 본부 박종연 대령(왼쪽)과 미측 설계와 건설대행자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부사령관 게렛 코트렐 대령이 2018년 12월 18일 한국 험프리스 기지에서 부사관 숙소 및 사병 막사 인수인계 문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안투완 패리시)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지휘부



테레사 A. 솔로서 대령 극동지구 공병단 사령관

솔로서 대령은 5백명 이상의 한미 인력을 이끌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지원, 정전 상황부터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기획, 기술, 설계 및 건설 관리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데니스 J. 맥기 중령 극동지구 공병단 부사령관

맥기 중령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출신으로, 뉴욕 로체스터의 로체스터 공과대학 토목공학 학사를 마친 뒤, 병기장교로서 ROTC로 임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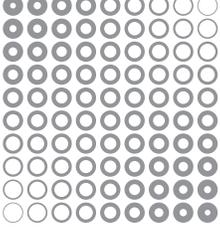


리처드 버드 극동지구 공병단 부단장

버드부단장은 육군, 해군, 해병대의 극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지부장을 역임했다. 또 유럽지부의 미사일방어부 부단장, 시애틀 지부의 계약관리부 부장, 행정계약책임자, 프로젝트 엔지니어 등으로 복무한 바 있다.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한국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은 태평양 사단의 4개 지구 중 하나로서 평화와 전쟁에 필수적인 공공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재난시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색인]

약어

- A**
Air Defense Artillery (ADA) 방공포병
- Airfield Operations Battalion (AOB) 비행장작전대대
- American Forces Network-Korea (AFKN) 주한미군방송
- Anti-Ship Cruise Missile (ASCM) 대함 순항미사일
- Armored Brigade Combat Team (ABCT) 기갑전투여단
- Army Special Operations Forces Liaison Element-Korea (ALE-K) 주한 미육군 특수작전부대 연락반
- Assault Helicopter Battalion (AHB) 공격헬기대대
- B**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탄도미사일방어
- Base Operating Support-Integrator (BOS-I) 기지지원통합관
- Battlefield Coordination Detachment (BCD) 전투협조처
- C**
Combat Aviation Brigade (CAB) 전투항공여단
- Combined Forces Command (CFC) 한미연합군사령부
- Combined Ground Component Command (CGCC)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 Combined Mission Essential Tasks (CMETs) 연합 임무 필수 과제목록
- Command and Control (C2) 지휘통제
- Commander, Fleet Activities Chinhae (CFAC) 진해 함대활동부 사령관
-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포괄적 군사 합의
- 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 대량살상무기
- D**
Defense Advanced Research and Projects Agency (DARPA) 국방 고급 연구 및 프로젝트 기관
- Defense Digital Service (DDS) 국방 디지털 서비스
- Defense Installations Agent (DIA)-ROK 한국 국방시설 대행
-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lso, Nor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북한
- Design Construction Agent (DCA)-ROK 한국 설계건설대행
- E**
Emerging Capabilities Council (ECC) 신형역량위원회
- F**
Far East District (FED) 극동지구
- Field Assist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FAST) 과학기술 야전지원
- First (1st) Armored Division (1AD) 제1 기갑사단
- Foreign Military Sales (FMS) 대외군사판매
- G**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GTRI) 조지아공과대학
- I**
III [Third] Marine Expeditionary Force (III MEF) 제3해병원정군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정보, 감시 및 정찰
- J**
Joint Capability Technology Demonstration (JCTD) Program 합동 능력 기술시범 프로그램
-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JUSMAG-K) 주한 미 합동 군사고문단
- K**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KMEP) 한국 해병대훈련 프로그램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 카투사
- Korean Theater of Operations (KTO) 한국작전전구
- L**
Land Partnership Plan (LPP); see also Yongsan Relocation Plan (YRP) 연합 토지 관리계획; 용산기지 이전계획 참조
- M**
Marine Air-Ground Task Force (MAGTF) 해병 항공-지대 특별 전담 부대
- Maritime Counter Special Operation Force (MC-SOF) 해상 대특수전 부대 작전

MD5-The National Security Accelerator (MD5) 국가안보부 액셀러레이터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M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군사 위원회 회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USFK Base Relocation Office (MURO) 국방부-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Mission Essential Tasks (METs) 임무 필수과제 목록

N
Navy Region Korea (CNRK) 주한해군 지역대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비전투 인원 후송 작전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 대서양 조약기구

O
Office of Naval Research (ONR) 해군 연구소

Operational Control (OPCON) 운영 통제권

P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POW/MIA) 전쟁포로/실종자

R
Rapid Capabilities Cell (RCC) 신속 역량 조직

Rapid Reaction Technology Office (RRTO) 신속 반응 기술 사무소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RSOI) 연합전시중원

Republic of Korea (ROK); also, South Korea 대한민국, 한국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대한민국 공군

Republic of Korea Army (ROKA) 대한민국 육군

Republic of Korea Design and Construction Agent (ROK DCA) 대한민국 설계 및 건설 대행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ROKMC)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Navy (ROKN) 대한민국 해군

Republic of Korea Ship (ROKS) 대한민국 함선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OK-US Alliance) 한미동맹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학군사관

Rim of the Pacific (RIMPAC) 2018 Innovation Fair 2018 환태평양 혁신박람회

S
Second (2nd) Infantry Division (2ID) 제2 보병사단

Second (2nd) Operational Command (2OC) 제2작전사령부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안보협의회의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주한미군지휘협정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SCO) 전략 역량처

Sustainment Brigade (SBDE) 지원여단

T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종말고고도지역역방어

Training Support Activity Korea (TSAK) 주한미군 훈련지원대

Training Support System (TSS) 훈련지원수단

U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Far East District (FED) 미 육군 극동지구 공병단

U.S. Army Forces Command (FORSCOM) 미 육군 사령부

U.S. Army Garrison Humphreys (USAG-H)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

U.S. Army Garrison Yongsan (USAG-Y) 미 육군 용산 기지

U.S. Army Pacific (USARPAC) 미 태평양 육군

U.S. Army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ommand (RDECOM) 미 육군 연구 개발 및 공병 사령부

United States (U.S.) 미국

U.S.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CMC) 미 해병대 사령관

U.S. Department of Energy (DOE) 미 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미 보건복지부

U.S. Design and Construction Agent (USDCA) 미 설계 및 건설 대행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주한미군

U.S. Indo-Pacific Command (USINDOPACOM)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U.S. Marine Corps (USMC) 미 해병대

U.S. Marine Corps Forces, Pacific (MARFORPAC) 미 태평양 해병대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한미안보협의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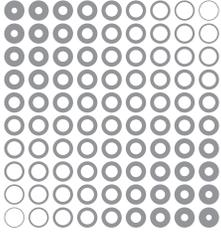
United Nations Command (UNC) 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주한유엔기념묘지

United States (U.S.) 미국

United States Ship (USS) 미 함선

Y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용산기지 이전 계획 및 토지관리계획



【색인】

크레딧

페이지 iv-v 목차, 시계 방향으로, 왼쪽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2017년 3월 8일 임관한 5천여명의 신임장교들을 축하하기 위해 합동임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선 K. 하프 중사)

유엔군사령부: 남한, 북한, 유엔군사령부 사이의 3자 협의기구의 첫 회의가 공동경비구역의 무장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국방부)

문화를 통한 연대: 진해 함대지원부대와 주한미해군 소속 대원들이 진해벚꽃축제로도 알려진 창원의 진해군항제에 참여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열흘간 열리는 축제는 매해 봄 벚꽃 개화시기와 겹치며, 2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사진제공: 미 해군 윌리엄 칼라일 상병)

유해본국송환: 다국적 군과 그의 가족들이 2018년 8월 1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본국송환기념식에 참석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도중 행방불명된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55상자를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아 본국으로 송환했다. (사진제공: 미 육군 조셉 E. 캐논 상병)

데이터

페이지 30: 인구 및 국내 총 생산 출처 <https://data.worldbank.org> 및 미 상무부 경제 분석국.

내지 커버/오른쪽: 대한민국 서울공항에서 매년 개최되는 서울 국제 우주항공 및 국방전시회가 의장대 시범을 필두로 다양한 문화사를 담아 대중에 공개되었다. 한국사람들은 전통춤에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담아내며 그들의 자랑스러운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사진제공: 미 공군 엠버 그림 병장)

페이지 44-45: 인구 출처 <https://data.worldbank.org> / 국방비 (달러), 출처 스톡홀름 국제 평화 리서치 연구소 연감: 군비, 군비축소 및 국제안보, 출처 <https://data.worldbank.org>.

페이지 60-61: 유엔사 전력제공국 데이터 출처: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미국 데이터 출처: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일러스트레이션

페이지 8-25, 30, 39, 40, 44-47, 56, 59, 60-61, : 앤 트래놀론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 전략커뮤니케이션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페이지 40: 용산 토지 이용 계획, 산하 제외, 서울시 지도 스테이먼 디자인, 오픈스트리트지도 데이터, ODbL 예속.

출판정보

페이지 57, 65, 73, 85, 91, 95, 99, 103, 107: 모든 지휘부 정보는 약 2019년 6월 7일 현재 기준.

출판일 2019년 5월 9일.

미디어 문의는 공보실 (02 7913 4661, 031 619 6132)로 연락 바랍니다.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 전략커뮤니케이션처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으로서 사령부 산하 기관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며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각 출처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Team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편집장
Col. Allen D. Leth 알렌 디 레스 대령
디렉터, 전략커뮤니케이션처

편집주간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nne Trenolone 앤 트래놀론

Maj. Jeffrey Bottrell 제프리 보트
렐 소령

Tae Kim 태 킴

Matthew Haynes 매튜 헤인스

Sung-yi Choi 최성이

Kristoffer Alstatt, Ph.D. 크리스토퍼
알스타트 박사

Armand Cucciniello 알만드 쿠치니
엘로

Peter Kim 피터 킴

Mihan Pastora 미한 파스토라

번역
Songyi Ahn 안송이

본 전략 다이제스트 출간에 도움을 주신
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한미연합군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주한미군사령부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한반도의 한해 주한미군]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연간 출판물

Resources



<https://www.facebook.com/myusfk>
<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Command>



<https://twitter.com/usforceskorea>
https://twitter.com/UN_Command



<http://www.usfk.mil>
<http://www.usfk.mil/About/United-Nations-Command>
<http://www.usfk.mil/About/Combined-Forces-Command>

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

연합사

COMBINED FORCES COMMAND

주한미군사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 한 반 도 의 한 해]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연간 출판물